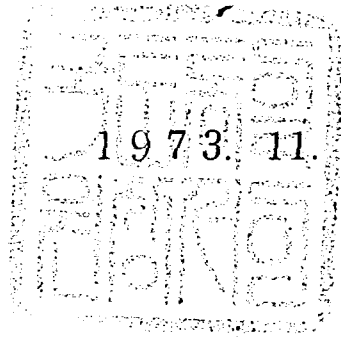


國統73-1-135

對北接觸 優先順位 研究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11.

研究機關：江原大學統一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金 井 厚

目 次

1. 序 文	3
2. 南北接觸의 前提	7
가. 南北接觸의 當爲性	9
나. 南北接觸의 主·客觀的 條件	13
다. 南北對話의 展望	20
3. 南北接觸의 範圍選定基準	29
가. 接觸과 同質性	32
나. 接觸과 政治文化	35
다. 接觸과 技術增進	40
라. 接觸의 制約變數와 戰略變數	44
4. 南北接觸의 可能範圍	51
가. 接觸分野	53
나. 接觸方法	58
다. 接觸形態	61
5. 南北接觸의 優先順位	65
6. 南北接觸의 具體的 實踐方案	75
가. 人士往來	77

나. 體育交流	80
다. 藝術交流	83
라. 文化·映畵交流	86
마. 各種 出版物 交換	88

1. 序 文

1. 序

文

本 研究는 지난 4半世紀동안 分断되었던 韓半島를 單一化하기 위한 方便으로 南北間의 接觸의 問題를 提起하고, 이에따른 接觸의 優先順位를 決定해 보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무릇 南北의 關係는 對話의 突破口를 찾기 始作한 '70年代 初半의 努力이 아직 初步的 段階에서 中斷되고 있다. 이것은 根本적으로 南北의 對話를 統制하는 세가지 變數 國際情勢, 韓國, 北韓 중 北韓이 계속 武力的 方法을 拋棄하지 않는데 그 原因이 있다. 다시말하면 南北을 單一化하려는 基本立場面에서 南과 北間에 현격한 差異가 있으므로 해서 南北이 共同의 目標點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本 研究는 이러한 狀況에서 北韓이 既往의 態度를 變更시킬 것 이라는 前提下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 一般적으로 새로운 南北對話에 對한 展望과, 이 展望에 關한 基本假定의 土台 위에서 接觸의 優先順位를 決定하는 變數를 推出하고, 變數의 相 關關係에 따른 接觸의 可能範圍를 選定할 것이다.

둘째로는 이러한 接觸範圍를 現實적인 土台위에서 單位別(Unit)로 区分지우는 接觸의 項目(形態)를 決定할 것이다.

셋째로는 決定된 項目에 基盤한 接觸의 優先順位를 찾아보고 이 優先順位에 따른 具體的 實踐方案에 關한 基本方向을 提示하려고 한다.

以上の 過程에서 併行되어야 할 몇가지의 主要한 概念을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接觸(交流) :

接觸의 概念은 둘 以上の 政治的 機能主體가 政治, 經濟 등에 있어서 相互間에 利益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目的하에서 武力이나 暴力이 아닌 對話의 方法으로서 協商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主體가 반드시 國家가 아니어도 된다는 점에서 外交와는 다른 概念이며 主體가 根本적으로 政治的 機能體라는 점에서 個人間的 去來와 區別된다. 그리고 「交流」의 概念이 南北間에 使用될 때는 「接觸」과 同一한 意味로서 使用한다.

나. 接觸形態, 接觸分野, 接觸方法

南北間的 接觸에 있어서 그 接觸의 범위를 分野面과 方法面으로 나누어 考察할 수 있다.

文化, 經濟, 社會 등은 接觸分野에서 理解되고, 人的往來를 통한 接觸이나 物資交流를 통한 接觸 등은 接觸方法으로서 把握한다. 그리고 接觸形態라 함은 이 分野와 方法의 各已 보다 細分된 屬性이나 特徵間的 相互 結合된 形態를 指稱한다.

2. 南北接觸의 前提

2. 南北接觸의 前提

가. 南北接觸의 當爲性

1960년대까지는 南北接觸을 할 것인가를 問題로 삼았다면 70年代에 들어서서는 南北接觸은 어떤 條件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問題로 올려놓고 있는 것이 韓國政府의 立場으로 되고 있다고 보겠다. 朴正熙大統領은 70年 8月 15日 慶祝辭 가운데서 북한이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나 暴力革命에 의한 大韓民國의 선복을 企圖해온 從前의 態度를 完全히 포기한다면 南北禪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段階적으로 除去해 나갈수 있는 劃期的이고 보다 現實的인 方案을 提示, 施行할 용이가 있다고 밝혔으며 71年 8月 15日 慶祝辭 가운데서도 북한이 「진정으로 武力과 暴力을 포기하고 진지한 새자세로 나온다면 平和統一을 爲한 對話의 広場은 언제든지 마련될 수 있을 것임을 確언해 둔다」고 確認하였다.

한편 「金永善 統一院長官은 71.8.16 國會에서의 質疑応答가운데 이보다도 具體적으로 「북한이 앞으로 武力赤化統一의 企圖를 포기할 경우 南北間의 間接 接觸에서 직접 接觸으로 3國 接觸에서 國內 接觸으로 非政治問題에서 政治 問題로 物件 交流에서 인적 교류등을 段階적으로 檢討하고 있다」고 말했다.

以上과 같은 政府 指導者와 關係長官의 정책 轉명은 南北交流의 當위성을 認定하고 오직 南北交流를 實現시킬 수 있는 條件의 解決과 그의 段階的 發展을 구상하고 있다는 事實을 보여주고 있다.

韓國政府가 이렇듯 南北交流를 부정하는 姿勢로부터 肯定하는 姿

勢로 轉換하게 된 것은 政府 指導者의 경륜에 기인한 것이라는
點도 無視할 수 없겠으나 그보다는 主客觀的 情勢의 要求가 기본
要因으로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主觀的 情勢는 南北 交流
에서 韓國側이 損害보다는 利益을 더 많이 거둘수 있게 남한의
發展된 經濟·社會의 토대가 갖추어져나가고 있는 한편 北韓의 권
력집단이 世界的인 平和와 自由化의 물결속에서 南北間 對話의 對
象으로 변질될 可能性을 넘어다 볼 수 있게되었다는 것이다.

朴正熙大統領은 전기 8·15 宣言에서 70年代 後半期에는 「우리의
주체적 역량의 충실과 國際的 條件의 성숙으로 統一의 실마리가
잡힐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특히 北韓의 폐쇄적인 社會制度도 時
代의 진운인 自由化 물결에 의해 스스로 변질될 것이며 또 우리
의 自由의 힘이 북녘까지 넘쳐흐를 것을 確信하고 있다」고 말했
다.

客觀的 情勢는 亞細亞 問題의 亞細亞化를 취지로하는 美國政府의
늑순주의로 말미암아 韓國은 統一問題로부터 防衛問題에 이르기까지
自主的 比重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朴正熙大
統領은 國際 情勢의 變化를 認定하면서 「自主 自立 自衛의 主體
性을 다시 찾아 우리의 運命을 스스로 開拓하고 民族의 앞길을
우리 힘으로 뚫고 나설 수 있는 슬기와 勇氣를 갖추게 된 것이다」
라고 역설한 것 以上の 事情을 말해준 것이다.

어떻든 韓國政府가 南北間의 對話와 交流에 能動的 姿勢를 보이
게 된 目的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그 하나는 統一
問題 解決의 실마리를 長期 計劃 밑에서 점차적으로 찾아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시켜 戰爭의 再發을 預防하자는 것이다. 전자가 長期 計劃인데 대해서 이것은 現實的인 要求로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朴正熙大統領은 「國土統一이 아무리 성실한 우리 民族의 지상 명령이라 하더라도 동족의 유혈을 강요하는 戰爭만은 피해야 하며 統一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꾸준한 인내와 最大限의 양식을 發揮하여 平和的으로 解決지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方向 제시는 韓國의 統一의 手段으로 武力을 使用해서는 안된다는 것인 同時에 北한으로부터의 戰爭 도발을 防止시켜야 한다는 要求가 包含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北한의 金日成은 70.11.3 勞動黨 第5次大會에서 행한 演說가운데 「情勢는 勿論히 緊張하다」고 말하면서 軍사력 強化를 逆說하였고 이어 「國防力을 強化하기 위해서는 또한 政黨(黨)과 全體人民이 다 달라붙어 戰爭準備를 더욱 다그쳐야 한다」고 말했거니와 60年代에 본격적으로 進行한 戰爭準備를 國際 情勢가 현저하게 緩和된 70年代에도 戰爭準備를 緩和하지 안겠다는 政策을 내놓고 있다. 韓國側이 北한을 戰爭防止로 誘導한다는 것은 平和 統一의 本質적인 要求로 되는 同時에 國防力強化의 負擔을 그만큼 輕減시키고 거기에서 남는 資源을 平和統一의 基礎 作業으로 되는 經濟建設에 充될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위에서 지적한 南北間의 對話 및 接觸에서 노리는 두가지 目的 이외에도 다른것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本質적인 것으로는 될 수 없다고 본다. 美國의 著名한 後進國 經濟 專門家로 알려져 있는 「울프」博士는 韓國의 民主黨政權 時代에 韓國 情報에

대한 報告書에서 南北韓間의 통상 교역이 南韓의 經濟 發展, 특히 自立 經濟를 建設하는데 有益하다고 말하고 그 根拠로 南韓의 經濟 成長이 人口 增加率에 앞서서 최소한 年율 5.5%씩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莫大한 外國 資本이 導入되 어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國內 資本을 調達하기 위해서 租稅의 증수라 貯蓄의 增大에 依存해야 한다고 보고 바라는 만큼 , 外國 資本을 유치하고 國內 資本을 調達하는 것이 事實上 어려울 것이니 南北韓間의 교역으로 이를 解決해야 한다는 것이다.

現在는 물론 당시와는 狀況이 달라져 年間 平均 經濟 成長率이 1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울프」博士가 생각한대로의 南 北韓間의 교역이 實現된다면 南韓의 經濟 發展에 커다란 도움이 될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南北間의 經濟 交流를 제외해 온 것은 유무 상통이라는 순수한 經濟的인 觀點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적와 통일 戰略을 구현하기 위한 手段으로 利用하려는데 주안점을 두 고 있는 것이 事實이고 보면 南北間의 經濟 交流가 南韓의 經濟 發展에 寄与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실사 다소간 寄 与된다고 하더라도 統一 問題에서 북한에 利点을 주는 것이라면 韓國이 經濟的 利点을 노리고 同 交流를 實施할 수 없는 일이다. 問題는 韓國側이 無條件 南北韓間의 經濟 交流를 否定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南韓의 經濟 發展에 크게 寄与케하기 위해서 經濟交 流를 하는 姿勢는 不当하며 오히려 韓國側이 經濟的인 面에서 損 害를 보더라도 南北間의 緊張이 緩和되고 또 北韓의 自由化에 寄 与하는 經濟 交流를 해야 하겠다는 姿勢가 正當하다는 것이다.

文化・科学 交流 등에 대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努勞가 必要하다.
어떻게 南北 接觸을 무엇부터 어떻게 展開할 것인가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同 接觸의 性格과 目的을 사전에
分明히 認識하지 않으면 統一 政策을 비롯한 政府의 對北政策에
重大한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나. 南北接觸의 主・客觀的 條件

南北韓이 다 같이 南北 交流를 政治的 條件 없이 民族
的 融合의 手段 乃至 과정이라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南北韓이 各各 양보할 수 없는 統一 目標의 達成을 위
한 手段이라는 점에 重點的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韓國을
韓國대로 그리고 北한은 北한대로 南北 交流를 展開하는 構想에
있어서 主・客觀的 條件을 重要視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主觀的
條件이란 對內적 狀況을 말하며 客觀的 條件이란 對內적 狀況과 關
聯된 對外적 사항 내지 情勢를 말한다」

(1) 主觀的 條件

8・15 宣言에서도 지적하고 있거니와 韓國의 民主共和黨 政府가
70年代 後半期에 비로소 統一 努力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는 것은 75年 以後에 본격적 南北 交流를 實施할 수 있게 主
觀的 條件이 갖추어지고 아울러 그때에 가면 客觀的 條件도 보다
유리해 지리라고 예측한 것이라고 보겠다.

「主觀的 條件을 具體的으로 보면 政治・經濟・社會・國民의 思想
및 國防力에 있어서 北한보다 위에 서게되고 南北 交流가 실로

勝共統一의 手段으로 유능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準備 狀態라고 할 수 있다.

첫째, 國內 政治面으로는 공고한 安定的 토대가 確實하게 구축됨으로써 大韓民國의 自由 民主主義 상대적 우수성을 充分히 확증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수성을 관념상으로만 아니라 國民의 기본권이 充分히 보장됨으로써 國民 각자가 이것을 實生活에서 실감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國民의 기본권이 民主主義의 理念과 合致되게 보장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가의 徵表는 정당 정치와 법치에서 나타난다. 民主主義의 건전한 發展을 알게 해주는 兩黨政治 體制가 어떠한 압박과 구속이 없이 確立되어 平和的인 政權 교체가 円滑히 實現될 수 있는 무한한 可能性을 가져야 한다.

다음 법치 문제에 있어서는 사법권의 獨立어 어떠한 權力으로부터도 침해 당하지 않고 完全한 것이 法治가 보장되고 있다는 徵表로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인데 이 밖에 大韓民國에 있어서는 法體系의 問題로서 特別 法인 國家保安法과 反共法의 존재 問題가 있다 特別法의 存在는 법치의 순수성과는 對立되는 것이다. 따라서 特別法이 必要 없을만큼 政治가 安定되고 복지 사회의 토대 위에서 大韓民國의 政治·社會體制에 大韓民國의 信賴가 깊어짐으로써 북한이 思想的으로 侵入할 수 있는 虛를 남겨 놓지 말아야 한다. 한편 特別法의 폐지는 統一努力의 본격적 進行 즉 南北間의 對話와 交流의 效率化를 위해서도 要求되는 만큼 國內與件의 準備에 따라 그의 수정 내지 존재를 檢討해야 할 것이다.

둘째, 經濟 및 社会面에서는 国力에 있어서 韓國이 北韓을 압도할 만큼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南韓사람들이 北韓사람들보다 衣食住에서 월등하고 더 文化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쪽의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못사느냐는 것은 兩側間의 政治・社会制度의 우열을 評價하는 基準으로 받아들여질수 있는 만큼 韓國이 만약 相對的 열세의 條件에서 南北 交流를 實施한다면 北韓의 赤化統一 戰略에 利用 當할 可能性이 크고 반면 韓國은 그것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朴正熙大統領은 60年代 이래 南北韓間의 經濟 發展 競爭이 統一 問題에서 어떤쪽이 주도권을 잡는가의 문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거듭 言及한바 있고 70年 8・15 宣言에서도 「북한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北韓 同胞들의 民生을 희생시키면서 戰爭 準備에 광분하는 罪惡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民主主義와 共產 獨裁의 그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수 있는 條件을 가진 社会인가를 입증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에 나설 용이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北韓의 姿勢 轉換을 促求하는 호소인 同時에 韓國이 統一問題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있어서 南韓의 經濟・社会 發展의 막중한 의의를 시사한 것이라고 보겠다.

韓國의 現政府가 70年代 後反期에 統一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공약은 이때에 가면 南北韓의 經濟・社会 發展關係에서 韓國이 北韓을 압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전제로되고 있다. 70年 1月 10日

朴正熙 大統領은 年頭 記者會見에서 70年代 末에 가면 南韓의 人口 1人當 國民所得은 400弗 以上이 되고 韓國은 世界 中國의 상위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이것이 統一의 유력한 터전이 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와 같은 問題 把握은 北韓의 經濟·社會 發展이 그 時期에 어느 程度의 水準에 오를 것인가에 따라 狀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하겠으나 60年代 이래 南北韓의 經濟 성장율에서 南韓이 더 빠르게 역전되어 있는 事實에 착안한 自身이라고 보겠다. 물론 經濟 發展과 社會發展은 並行되어야 하고 國民의 生活面에서 經濟 發展의 惠沢을 直感해야 만 南北韓 關係에서 韓國이 우위에 설 수 있는 條件으로 된다.

세계, 國民의 思想 問題에서는 統一問題에 대한 국론의 統一과 거국적 勝共統一에도 매진하는 姿勢가 必要하다. 물론 이러한 國民 思想과 精神 姿勢는 大韓民國의 政治·社會體制의 상대적 優越性이 生活面에서 실증해 출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大韓民國 주도하의 統一을 國民이 生活上의 사활문제로 받아들여지 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統一問題 및 南北韓 關係의 性格을 옹기 認識한 바탕위에서 하나의 統一 路線에 國民 努力이 集中되지 않으면 안된다. 무원칙한 감상적 統一論이라 든가 或은 조급한 統一 염원 내지 허무주의적 사고방식으로부터의 용공적 統一論등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統一 問題에 對한 知識 과 精神 姿勢의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보겠다. 이 問題에서 60年 4·19로부터 61年 5·16 革命까지 전까지에 보여 주었던 統一 論議에 있어서의 국론의 분열은 앞으로 統一 政策을 構想하는데

있어서 거울 삼아야 할 歷史的 敎訓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네째, 國防力의 問題이다. 充分한 國防力의 確保는 統一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하기 위한 「이니시아티브」를 장악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내내적 要件이다.

國防問題의 위기의식에서 헤어나가지 못한다면 統一問題에 能動的인 姿勢를 가질수 없을 것이며 한편 북한은 韓國의 國防力에 취약성이 드러나면 統一 問題의 平和的 解決에는 突質的으로 外面하고 무력에 의한 統一에 重點을 둘것이기 때문이다.

(2) 客觀的 要件

客觀的 要件은 北韓 情勢와 國際情勢로 나누어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北韓 情勢가운데 가장 重要한 問題는 北韓 權力集團이 變질 可能性이다. 이 問題에서는 다음 몇가지 境遇를 가상할 수 있겠다.

첫째, 北韓 權力 集團이 民族, 民主主義 勢力으로 바뀌어지는 境遇.

둘째, 北韓의 權力 集團이 社會 民主主義的 勢力으로 바뀌어지는 境遇.

세째, 北韓의 權力 集團이 동부 유럽의 共產政權 程度로 比較的 온전한 共產主義 權力 集團으로 變質되는 境遇이다. 이 가운데서 현시점에서의 展望으로는 첫째의 境遇는 가장 소망스러운 것이지만 거의 不可能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의 境遇도 可能性이 희박하다고 予想된다. 다만, 세계의 경우는 可能性이 있고 期待해 볼수 있는 것이다. 물론 韓國側으로부터의 作用에 따라서 그 可能性이

커질 수 있고 變質을 앞당기는데 影響을 미칠 수 있다. 8·15
 宣言에서 「……北韓의 폐쇄적인 社会制度도 時代의 進운인 自由化의
 물결에 의해서 스스로 變質될 것이며 또 우리의 自由의 힘이 북
 녁까지 넘쳐 흐를 것을 確信하고 있다고 한 것은 北韓 權力 集
 團의 社会民主主義化까지를 予想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편 武
 力에 의한 赤化統一을 포기해야 한다고 한 것은 적어도 동부 유럽
 共產政權 程度로는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의 權力 集團이 社会民主의 勢力으로 바꾸어 진다면 統一問題
 의 民主的 解決을 위한 南北韓 對話 및 接觸의 對象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다음 온건한 共產主義 集團으로 변질된다면 戰爭 防
 止 乃至 長期的 統一 目標을 내세운 對話 및 接觸의 對象으로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北韓 權力 集團이 現在와 같은 狀態에
 서는 적지않은 리스크가 予想되지만 韓國의 基本 政策路線에 어긋
 나지 않는 限界에서 戰爭 防止를 위한 對話 및 接觸의 對象으로
 끌어 들이는 努力을 하는 것이 韓國의 長期的 統一政策 및 安保
 政策에 有益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경우는 同 對話 및 接觸
 의 범위와 깊이가 容당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國際情勢에서는 무엇보다도 韓國의 國際的 우호 내지 동맹
 관계와 북한과의 國際的 우호 내지 동맹관계와의 상관 관계에 중심
 을 두고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現在와 같이 南北韓의 國際的 우호 내지 동맹관계가 다같이
 強力할 境遇.

둘째, 韓國의 同 關係는 強力한데 반해서 북한과의 同 關係는 취

약해지고 있을 경우.

세째, 韓國의 同 關係는 취약해지고 있는데 반해 北韓의 同 關係는 強力한 狀態의 경우

네째, 南北韓의 同 關係가 다 같이 취약해지고 있을 경우를 가 상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둘째의 경우와 네째의 경우가 統一問題 解決을 비롯 하며 比較的 높은 次元의 南北間의 對話 및 交流를 實施하기에 適合한 客觀的 條件으로 된다. 韓國이 일방적으로 強力한 國際的 배경을 갖고 있거나 또는 南北韓이 다 같이 強力한 國際的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할 條件에서는 북괴의 武力 남침 或은 그 밖의 手段에 의한 赤化統一의 계락을 견제하면서 統一問題의 解決에 接近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南北韓의 軍事力에 있어서 均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다음 첫째의 경우와 세째의 경우는 南北間의 對話 및 交流가 緊張 緩和 乃至 戰爭 防止의 目的의 限界內에서 實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南北韓이 다 같이 強力한 國際的 우호 및 同盟關係를 갖고 있다는 것은 南北韓의 對立이 경화되고 있는 가운데 統一問題의 解決에 平和的 手段을 重要視할 可能性이 희박하다는 事情을 반영한 것이며 同時에 統一問題의 解決에 있어서 國際權力 政治의 理解關係가 相對的으로 보다 깊이 얽혀있고 따라서 統一問題의 處理에 있어서의 自率的 比重과 他率的 比重 가운데 後者의 作用이 여전히 높다는 事實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南北間의 대화 및 接觸의 統一問題의 解決에 역할을 할

可能性이 희박하다고 보겠다. 또한 韓國의 國際的 우호 및 同盟關係가 취약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北韓의 그것이 여전히 強力한 狀態에 있을 경우에는 北韓은 赤化統一의 努力에 보다 積極的이고 특히 정규전이 아니더라도 武力에 의한 統一에 重点을 둘 것으로 보인데 對해서 韓國側이 平和的 統一問題에 주도권을 잡을 可能性은 희박한 것으로 보아 南北間 對話 및 交流를 戰爭 防止에 目的을 두고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을 뿐 統一問題의 解決을 위한 手段과 과정으로 利用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겠다.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韓國은 客觀的 條件을 統一問題의 解決에서 유리한 지위를 確保할 수 있는 方向으로 들릴 수 있게 能動的인 活動을 展開해야 할 것이고 萬一 불리한 國際的 條件이 不可避的인 것으로 강요될 경우에는 對內的인 戰列의 정비 강화로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최소한 北韓의 赤化統一 企圖를 막아내야 할 것이 絶對的인 國家的 課題로 되고 있다.

다. 南北關係의 展望

(1) 南北對話構想

南北對話의 決定要素 南北對話는 國際情勢, 韓國, 北韓의 세가지 變數의 相互作用關係로 把握할 수 있다. 이 세가지의 變數의 基本立場과 現實的 狀況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國際情勢는 平和共存 및 緊張緩和을 追求하는 流動적 狀況에 處해 있다. 무릇 平和共存의 用語가 東西양진영間의 國際政治的인 用語로 보편화되기 始作한 것은 1956年 才 20次 소련

공산당 全党大会에서의 「호르시초프」에 의해서 發言되고난 이후 부터이나 이것이 實際의 現實的 感覺을 지니고 대두된 것은 미· 소間의 「큐바」危機를 겪은 1960年代 부터이다. 그러나 60年代의 平和共存의 概念은 적어도 自由·共產의 兩陣營間의 競争的 狀況이 前提되고 있었으며 事實上 全世界的인 概念으로 보편화 되지는 못했다. 即 中共의 경우에는 美國의 封鎖政策으로 國際무대에서 強制的으로 제지되었으며 實際 中國本土를 代表하는 國家로서 認定받지 못했던 狀況에 있었다.

이러한 狀況이 70年代에 들어옴으로써 變化되기 始作하였다. 1972年 正式으로 中共이 UN에 加入되고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으로 등장함으로써 그리 冷戰 狀態終熄을 위한 基本課題였던 獨逸의 問題가 解決됨으로써 世界政治는 冷戰에서 共存으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冷戰의 思考와 行態도 共存 緊張緩和라는 새로운 方向으로 급속한 發展이 이루어지고 있는 現實에 應하게 된 것이다. 韓半島 역시 이러한 새로운 狀況에서 대두된 國際政治 秩序의 樞軸에서 주변 強大國의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둘째는 韓國의 態度는 韓半島의 平和定着에 當면目標을 定立하고 있다. 적어도 70年 8·15 談話文에서 朴大統領이 밝힌 「平和的 競争體制」의 宣言에서부터 最近 6·23 特別宣言에 이르기 까지 韓半島 問題에 있어 基本的으로 平和的 接近을 希求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은 韓半島의 自由, 民主秩序下의 統一이라는 最終目標 達成을 위하여 當面課題로서 平和的 方法 即 韓半島의 平和定着

을 내세우고 南北對話를 推進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로 北韓은 基本立場으로서 韓半島의 赤化 共產化統一을 最終目標로 내세우고 이를 위한 南韓內에 人民革命을 企圖하고 있다. 이것은 北韓이 勞動黨 規約 前文에 明示된 바

『朝鮮勞動黨은 南北 朝鮮의 広範한 人民大衆을 自己의 周圍에 튼튼히 團結시키며 勞農同盟을 基礎로 한 全朝鮮의 各界各層 愛國的 民主力量들과의 統一戰線을 強化함으로써 우리나라 兩半部를 美帝國主義 侵略者들의 強點과 그 走狗들의 反動統治로 부터 解放하고 民主主義의 基礎 위에서 祖國의 完全한 統一을 成就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고 되어있다. 이러한 根柢는 北韓이 基本的으로 武力과 暴力의 方法을 統一의 手段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基本立場을 示唆하고 있다.

(2) 南北關係의 展望

이 같은 基本立場에 서서 南北關係를 現在의 對話構造와 새로운 對話構造를 나누어 展望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前記한 南北對話의 決定要素에서

現在의 對話	D
國際情勢	I
韓 國	S
北 韓	N

이라고 할때 南北對話는 $D = f.(I.S.N)$ 으로 表記할 수 있다.

이 構造式에서 現段階의 南北對話를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現段階의 南北間의 對話는 基本的인 狀況에서 國際政治(2)가 基本的인 決定要素가 되고 있다. 이것은 南北對話가 國際政治的인 要因에 依해 韓半島 内部에서 強要되고 있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南·北韓은 相互의 戰略目標 即 統一에 關한 最終目標와 當面課題에 있어 가 直接的으로 相峙되고 있는 狀況이다. 이것은 北韓의 경우 아직까지 그들의 赤化統一을 위한 方法으로서 暴力 또는 武力의 方法을 固守하고 있음으로써 起因되는 것이며 이러한 對峙狀態는 南北對話를 中斷시키고 結果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南北은 事實上 對話以前의 狀態보다 葛藤이 더욱 高潮될 可能性을 潛在的으로 內包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南北關係를 타개하려는 對話構造의 새로운 危機를 招來하고 있음은 勿論 南北間의 諸般 對話·接觸의 可能性을 源泉的으로 封鎖할 可能性마저도 內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南北對話構造의 危機는 적어도 다음 몇가지 새로운 狀況을 假定할 경우 解消될 可能性이 엿보인다. 即 北韓이 현재의 態度를 變更시킬 수 있는 狀況을 몇가지의 事實을 通하여 予測해 봄으로써 危機狀況으로 부터 새로운 對話構造에로의 轉換할 수 있음을 말한다.

北韓의 態度變更의 展望은,

- 北韓의 態度變更 NA(North Korea Adaptation)
- 韓國體制的 安定 KS(Korean Stability)

○ 韓半島内の 美軍駐屯 UNPK(Un Forces Presence in Korea)

○ 國際情勢 PC (Peaceful Coexistence)

로 前提할 때

$$NA = f(K, S \times UNPK) + PC$$

로 表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北韓이 基本的으로 韓半島 赤化統一의 路線으로 내세우고 있는 「3大革命力量」強化 即 國際支援力量, 南韓內 人民革命力量, 北韓內部力量 을 逆算法으로 推出된 것이다. 上記의 公式을 解析하면 北韓의 對話에 대한 態度 變更(對話의 受諾 또는 對話中斷의 撤回)은 韓國體制 安定과, 南韓內의 美軍駐屯, 國際平和共存秩序의 3개 變數의 함수關係로 把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함수關係에 나타난 各 要素에 作用關係는 이것이 基本的으로 金日成의 政權危機에 直結될 수 있다는 假定에서 意味를 갖는다. 即 韓國體制의 安定은 곧 北韓의 對南人民革命 企圖를 源泉的으로 封鎖하는 要素로 把握하고, 南韓內의 美軍駐屯은 그들이 勞動黨規約에서 내세우고 있는 『……帝國主義者들로 부터 兩朝鮮을 解放……』 한다는 路線을 排除시키는 要素이며 平和共存의 國際秩序形成은 그들의 暴力革命의 素地를 拒否하는 要素이다. 따라서 上記한 3개 變數 即 韓國體制安定, 南韓內의 美軍駐屯, 國際的 平和共存秩序는 金日成의 政治的 名分을 喪失케 하고 同時에 새로운 對話의 受諾이라는 態度의 變更를 不可避하게 만들 것으로 展望할 수 있는 것이다.

北韓의 態度變化와 金日成의 對話選擇의 關係를 數式化 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北韓의 態度變更은

$$NA = f.(K.S UNPC) + P.C \dots\dots\dots ①$$

그런데, 金日成의 對南赤化統一目標을 _____ NB,

國際革命 力量을 _____ IR,

南韓內 人民革命力量을 _____ SR,

北韓內部力量을 NR라 할때

$$NB = f.(IR.SR.NR) \dots\dots\dots ②$$

그리고, $IR = K \frac{1}{P.C} \dots\dots\dots ③$

$$SR = K \frac{1}{K.S}$$

그리고 北韓體制的 內部矛盾을 "α" 라 할때

$$NR = K \frac{1}{\alpha} \dots\dots\dots ④$$

※ 여기서 "α" 는 金日成의 政治路線喪失에 起因하는

- 北韓內的 權力的 化石化
- 經濟의 停滯化
- 思想의 窒息化
- 社會의 閉鎖化를 指稱

①, ②, ③, ④에 의해서

$$NA = f \left(\frac{1}{NB} \right)$$

그러나 여기서 PC, UNPK 가 南北韓의 非統制 變數(UNPK

를 極東強國政治의 需要로 把握) K, S는 韓國의 調整變

數이므로 NA의 증가와 同時에 NB를 減少시킴.

以上の 數式上에서 現 大韓民國의 政策方向이 體制安定 위주로 展開시켜나갈 경우 北韓은 南北對話를 最終의 代案으로 選擇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다시말하면 南北韓 共히 統制不可能한 變數인 국제정세와 美軍駐屯의 問題가 北韓의 態度 變更를 要求하는 方向으로 展開됨으로써 相對的으로 金日成의 武力에 依한 目標達成을 不可能케 하며 北韓體制內的 矛盾解消을 위해 平和的 對話方法을 追求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以上 北韓態度變更를 展望할때 南北關係는 새로운 對話의 構造로 轉換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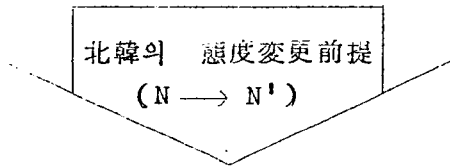
即 前記한 $D = f(I, S, N)$ 에서 北韓이 態度를 變更함으로써 ($N \rightarrow N'$ (태도변경)) $D' (새로운대화) = f(I, S, N')$ 로 되고 이 對話構造에서는 韓半島는 平和定着의 條件을 決定하기 위한 南北의 競争關係가 基本的 課題로 등장할 것으로 展望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對話構造에서는 南北韓이 對話의 基本的 決定要素로 등장하게 되고, 南北關係 역시 相互의 目標對峙는 對話不在를 招來케 되므로 해서 相互實利의 立場에서 諸般懸案問題의 解決을 追求하게 될 것이다.

以上の 現段階의 對話構造와 새로운 對話構造와의 關係를 表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 現段階對話構造와 새로운 對話構造 >

現段階對話 (8.28 以前)		
基本狀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政治가 對話의 基本的 決定要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f(I, S, N)$ ○ 對話中斷
南北關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相互戰略目標(統一)가 상치 ※ 北韓의 赤化統一戰略固守로 諸般問題 합의 실현 불가능 	



새로운對話		
基本狀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韓이 對話의 基本的 決定要素로 登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f(ISN)$ ○ 韓半島의 平和定着패턴 決定이 主要課題(共存秩序)
南北關係 展 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相互 권의 追求 ○ 相互 實地分野에 관한 합의 實現可能 	

3. 南北接觸의 範圍選定基準

中華民國 陸軍 軍醫 中校 王 德 全

3. 南北接觸의 範圍選定基準

南北間의 接觸은 前記한 새로운 對話構造를 前提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對話構造에서도 南北對話의 特殊性에 起因하여 必須的으로 考慮되어야 할 몇가지의 條件이 問題視된다. 南北間의 關係는 基本的으로 理念의 次元과 民族의 次元의 2重의 構造속에서 把握되어야 한다. 흔히 南北關係를 「分斷同一民族」間의 關係로 把握할 때 이것은 單一民族이라는 民族史的 單一体感이 強調되는 概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南北이 韓民族으로서 느끼는 歷史的・傳統的 單一意識이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民族」이라는 概念을 同一한 言語, 齊一한 慣習・傳統을 가지고, 그리고 血統이나 地緣關係가 있는 歷史的 文化共同體로 把握할 수 있는 한 南北이 韓民族으로서 文化, 歷史, 傳統에서 同質性を 갖고 있음을 말한다.

이와 反面에 南北韓關係를 「相異한 異質體制」間의 關係로 把握할 때 이것은 理念的인 側面이 보다 強調된다. 即 分斷民族間의 關係가 單一民族이라는 前提를 隨伴하는 反面에 後者の 경우는 異質的인 自由, 共產의 理念體制가 前提가 됨을 말한다. 異質的인 理念, 體制는 諸分野에 있어서 南北間의 異質的인 價值構造를 形成하고 南北에 各己 다른 政治文化를 形成해 왔다.

南北間의 關係는 위의 兩側面에서 同一民族이라는 次元과 相異한 理念, 體制라는 次元의 2重의 構造로 把握할 수 있다. 單一民族으로서 南北間의 關係를 把握할 때 이것은 多分히 調和(harmony)의 側面에서 南北韓을 肯定的으로 誘導할 수 있는 根拠로

볼 수 있는 反面에 理念對立關係로서의 南北韓 關係를 把握할 때는 相互의 葛藤의 側面을 지나고 있으며 同時에 南北韓 關係를 否定的으로 誘導할 수 있는 根拠가 된다.

南北韓의 接觸은 이와같은 南北韓의 二重構造에서 把握하며 다음과 같다. 우선 南北韓間의 接觸이 實現되려면 그것은 南北關係의 特殊性에서 同質性의 條件과 體制守護의 條件을 充足시켜야 한다. 즉 民族的 次元을 強調하는 條件으로 民族의 연계回復과 同質性 確保라는 必須的 要素와 同時에 南北의 異質化된 理念(政治文化) 體系를 直接的으로 깨뜨리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後者の 것은 各己의 政治自體를 否認하는 것으로서 各 政體의 存立에 重大한 危脅要素로서 생각하므로 接觸自體論理마저 否認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同質性, 體制守護의 두가지 條件以外 南北間의 接觸이 擴大될 수 있는 機能的 派及效果를 考慮할 수 있다. 各 要素를 接觸과의 關係속에서 具體적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가. 接觸과 同質性

一般的으로 南北間의 同質性(identity)은 歷史, 傳統을 같이 해온 民族文化面에서의 同一性과, 理念・體制와 無關하게 近代化・産業化를 目標로 한 諸般工業技術 등에서 나타나는 價值構造面에서의 同一性으로 分類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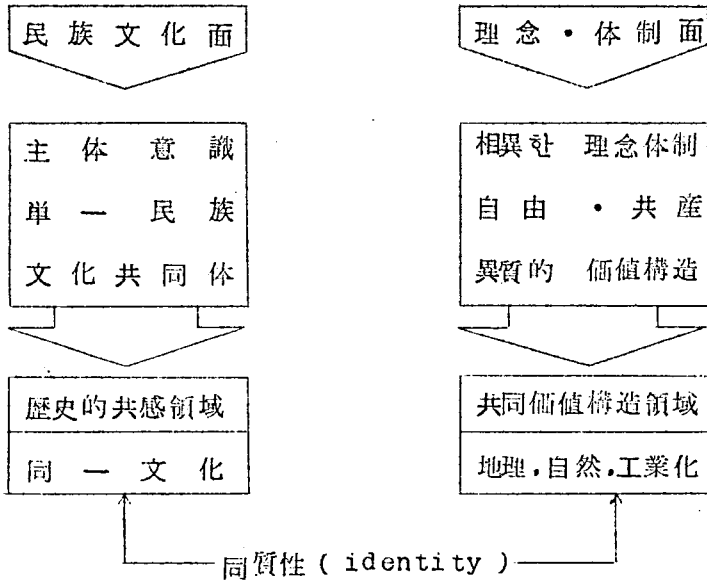
南北間의 同質性은 民族・理念의 二重構造의 「틀」속에서 考察할

수 있다. 同一民族으로서 갖는 同質性은 現實的으로 南北이 歷史的 共感을 느낄 수 있는 單一文化・傳統・言語・血統・地緣關係등에 基盤한다. 이것을 民族文化面에서 南北이 갖는 同一性으로 把握할 수 있다.

反面에 相異한 理念・體制를 通한 相互의 理念對立의 側面에서 보면 비록 이러한 對立의 歷史를 通해 相互間에 異質的 價值構造를 形成하여 왔음에도 不拘하고 共히 近代化・産業化를 目標로 한 工業技術 (technology)分野에서의 同一性이 存在한다. 그리고 以外에도 理念對立과 無關한 것으로서 海洋이나 氣象등의 地理的・自然的인 同一性이 存在할 수 있다. 이러한 工業技術面에서의 同一性이나 地理的・自然的 同一性은 南北間의 理念・體制의 問題를 떠나서 南北이 共히 느낄 수 있는 領域이다. 즉 南北이 理念・體制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共同으로 느낄 수 있는 共同價值構造의 領域이라고 表現할 수 있는 것이다.

以上을 南北關係의 二重構造와의 關係로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南北關係의 二重構造와 同質性



一般的으로 開放体制國家 相互間的 接觸은 接觸對象에 對한 同一認識에서 出發한다. 그러나 相異한 體制間的 接觸의 경우에는 接觸의 對象 - 즉 接觸分野나 接觸方法 - 을 理解하는 各己의 價值體系의 差異를 考慮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의 接觸의 경우에도 같은 論理가 適用된다.

그러나 적어도 南北間的 接觸은 民族과 理念의 相互 矛盾되는 兩概念間的 二重構造에서 把握할 경우 肯定的인 民族이라는 同一性의 次元에서 否定的인 理念의 異質性을 解消시켜나가는 努力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南北間的 接觸을 為해서는 民族文化面에서의 同一性 즉 歷史的으로 南北의 共感領域을 發見하여 試圖될

性質의 것이 기도 하다. 이것은 單一民族으로서의 主体意識의 면을 보다 強調함을 뜻한다.

同時에 南北間의 接觸은 이것을 南北의 統合을 위한 方便으로 생각하는 한 相互의 敵對感 내지 不信感을 助長하지 않는 範圍에서 試圖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南北의 相異한 理念 体制의 影響範圍 바깥에서 接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은 곧 理念·体制와 無關한 共同價值領域인 工業技術面이나 地理的, 自然的인 領域에서의 接觸이 보다 容易함을 뜻한다.

나. 接觸과 政治文化 (political culture)

(1) 政治文化의 一般的 概念

政治文化 (political culture)의 學問上의 概念은 行動者와 行動의 狀況의 相關關係를 前提로 한 것으로서 社會의 一般文化中에서도 “如何히 統治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關한 國民의 價值 (Values), 믿음 (beliefs), 感情的 態度 (emotional attitudes)를 말한다.

Samuel H. Beer는 政治文化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사람은 共通된 人間性 (human nature)에서 어떠한 感情的 衝動, 知的能力 그리고 道德的 傾向을 가지고 있으며 多少 變更을 加하면서 그것을 教育과 模倣을 通하여 다음 世代에 傳達한다. 이것은 感情的 態度, 價值, 믿음의 問題이며 社會文化는 이것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社會의 一般文化中의 한 面 즉

部分文化로서의 統治는 어떻게 行해져야 하느냐?, 統治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의 問題가 提起되며 이러한 問題에 關한 것이 곧 政治文化이다.」

그러므로서 政治文化는 社會의 一般文化처럼 價值, 믿음, 感情的 態度로서 構成된다. 이 各各의 要素는 手段 (means)을 強調하는 要素와 目的 (ends)을 強調하는 것으로 區別된다.

즉 政治的 價值에 있어서도 어떠한 拘束力을 가지며, 服從을 要求하는 道德的 性質을 띠고 權威있는 決定을 形成, 執行하는 節次에 關한 價值概念 (conceptions of authority) - 이를테면 憲法에서도 權威的 決定을 形成하고 執行한다는 構造에 關한 價值概念이 있을 수 있다 - 이 있는 한편 이러한 決定이 奉仕하는 一般目的에 對한 價值概念 (conceptions of purpose) - 이를테면 私有財産制度의 保存, 言論의 自由, 外敵에 對한 防禦와 같은 것에 關한 概念 - 이 있다. 그리고 各政治體系에 있어서의 權威概念의 價值 및 一般目的 概念의 價值는 場所와 時에 따라 各 體制의 政治行態, 政治活動도 달라진다.

反面에 믿음이라는 것은 一種의 信念體系 (belief system)을 말한다. 政治的 價值에 두 概念이 있듯이 믿음에도 權威概念의 것과 一般目的概念의 것 두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西歐 民主主義 國家의 경우 그 理想에 있어서 大部分의 사람들이 “ 投票하여야 한다 ” 는 當爲的인 概念은 前者에 屬하는 것이고, 大部分의 사람들이 “ 어느 程度의 合理性을 가지고 政治에 參與할 수 있다 ” 는 믿음은 後者에 屬한다.

元來 믿음의 體系는 價値의 體系보다 變하기 쉬우며 새로운 知識에 依하여 變한다. 科學的 知識 및 技術의 發達의 人間生活의 變化가 많은 西方社會에서는 옛 價値의 바탕이 되어 있는 옛 믿음에 새로운 知識에 依하여 變化하여 새로운 믿음으로 化하고 結局은 이 새로운 믿음에 따라 옛 價値가 作用하여 變하는 現象을 본다. 이와 反對로 外來的 要素와 傳統的 固有의 要素가 混合되어 있는 政治社會에서는 政治文化도 混合的이다. 混合的 政治文化에서는 價値와 믿음의 不調和가 發生한다.

어떠한 政治體制도 이에 對한 人民의 感情的 支持 또는 그에 알맞는 態度 즉 理致를 따져서 說明할 수 없는 愛國主義 또 國家의 目的, 價値, 믿음에 對하여 無條件 支持하고 指導者에게 服從하는 態度 등이 없이는 維持되기 어렵다. 우리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指導者에 對한 崇尚, 國旗, 國歌, 記念碑, 銅像, 公共儀式 또는 行事 등이 지닌 象徵主義는 人民의 團體行動을 通해서 政治的 團結을 強化한다.

이러한 感情的 行動에 依하여 政治體制를 強化・維持하고, 逆으로 그에 따른 價値・믿음을 形成한 例는 나치스의 政治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正常的으로 着想의 變化에 이어 價値의 變化, 그리고 마지막으로 感情的 變化가 달라진다.

以上에서 說明한 것 처럼 한나라의 人民들의 政治行態・活動등을 그들의 政治的 價値, 믿음體系 및 感情的 態度 또는 象徵主義에 依하여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것을 構成要素로 하는 政治文化는

一般的으로 集團의 政治行態에 또 政治体系의 作用方式에 큰 影響을 준다 하겠다. 따라서 政治生活에 있어서의 權力作用 및 關心, 또 이 兩者에 依하여 生産되는 政策도 政治文化에 依하여 어떠한 狀態를 取하게 되며, 結局 한나라의 政治体系는 政治文化에 依하여 狀態化 (conditioned) 된다고 볼 수 있다.

(2) 南北間의 接觸과 政治文化

政治文化의 概念에 着眼할 때 南北間의 接觸은 体制守護의 問題와 關聯된다.

韓半島의 分斷된 兩個의 政治体制은 지난 4半世紀동안 相異한 政治理念과 支配体制에 依하여 極端的으로 硬直化 내지 異質化되어 버렸다. 따라서 双方体制의 政治에 對한 價值와 信念体系 및 感情的 態度 - 즉 政治文化 - 는 전혀 相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政治文化가 個人 및 集團의 政治行態에 또 政治体系의 作用方式에 큰 影響을 준다는 前提下에서 南北間의 接觸의 問題를 介在시킬 때 이것은 곧 各己의 体制守護라는 側面과 南北接觸이라는 側面에서 兩側面間의 矛盾을 배태하게 된다. 이것은 相異한 南北間의 接觸은 基本的으로 相互의 体制變質의 要素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双方体制가 各己 自己体制를 保存 내지 守護하려 하는 한 南北間의 接觸은 政治文化的 要素를 無視한 채 이루어 지기는 힘들다.

歴史的으로 지난 4半世紀 以上の 分斷狀態下에서는 基本的으로

南北間의 關係를 我邦体制의 肯定과 他邦体制의 否定을 通해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各己 体制의 政治名分이었음은 勿論이고 보다 더 重要的 것은 이전 名分을 標榜하는 各 權力集團이 南北에서 說得力 있는 現實 政治勢力으로 人民에게 理解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이것은 雙方의 人民이 갖는 政治文化的 要素인 價值, 믿음, 感情的 態度에 있어 相互 對峙되어 왔음을 뜻한다.

政治的 價值的 權威的 概念이 民主·共產의 理念에 立脚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理念下에서 一般目的인 概念의 價值도 南北은 相互 異質的이다. 믿음에 있어서도 南北이 갖는 信念體系가 相異하다. 그리고 政治文化的 一般的 概念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北韓의 경우는 外部로 부터의 一切의 知識體系를 遮斷當하고 오로지 金日成 個人的 偶像化 政策에 依한 金日成 唯一思想만이 北韓人民의 信念體系로 남아있다. 특히 政治文化的 諸要素가 象徵主義에 吸收되어 “金日成 아버지” 또는 “偉大하신 首領 同志이신 金日成” 등의 口號가 生活化되고 있다. 즉 北韓의 政治文化는 한마디로 金日成 唯一思想의 生活化로서 集約할 수 있는 것이다.

南北間의 政治文化的 異質性은 곧 南北間의 体制差異로 表現될 수 있다. 따라서 各 体制가 自己 体制를 維持하려는 根本的인 慾望을 拋棄하지 않는 한 南北間의 接觸은 政治文化에 影響을 미치는 程度가 強한 경우일수록 實現되기 어렵다는 論理가 선다. 이것은 곧 相互의 價值, 믿음, 感情的 態度에 影響을 주지 않거나 最少限 相互의 影響을 甘受할 수 있는 程度에서 接觸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다. 接觸과 技術增進 (skill promotion or positive function)

(1) 接觸과 成功感

特定한 形態의 接觸을 通해서 共同의 意識을 形成하는 것은 南北間의 接觸이 指向하는 바 하나의 目的이 된다. 一般的으로 接觸을 通해 共同意識을 갖는다는 것은 接觸의 過程에서 좋은 經驗 (good experience) 을 쌓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爲해서는 特定한 接觸形態 그 自体 또는 그것이 包含하는 屬性이 共同의 協助와 作業을 通해 成功感 (experience of success) 을 確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論理가 成立한다. 즉 特定한 接觸過程을 通해 南北間의 相互協助나 共同研究등이 成功感を 갖일 수 있는 接觸形態의 경우에 共同意識이 形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Bernard de Veto 는 Hormans 의 The Human Group 의 序文에서 接觸 (interaction) 과 共感 (sentiment) 에 關해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 Interaction”and “Sentiment” depend on each other; the oftener “A” and “B” do things together, the more they tend to like each other; the more they like each other, the oftener they will tend to do things together]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도 協助나 共同勢力을 通한 兩者의 行動의 結果가 “ 滿足스럽다 ” 는 假定下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Hormans 는 그의 上記 著書에서 두 親舊間의 友情 (friendship)

과 接觸 (interaction) 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두사람이 서로 좋아한다. 만약 우리가 그 理由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共同의 利益 (Common interest) 이 있거나, 그들의 性格 (personality) 이 맞기 때문이라는 答을 들을 것이다. ……中略……우리는 두 사람이 만나는 回數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자주 만나고 그러므로서 共同의 利益을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은 親旧가 될 것이다. 反面에 그들이 親旧間이라면 그들은 共同으로 協助하여 일할 수 있는 (getting together) 機會를 자주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자주 만나지 않는다면 그들間의 友情은 漸次로 사라질 것이다. (中略) 우리는 두 親旧가 「캠핑」에 興味를 가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間의 感情的인 結束 (immotional tie) 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캠핑」을 통하여 두사람이 같이 얻을 수 있는 滿足感이 있을 경우이다. 만약 「캠핑」 過程에서 모든 일이 잘 되었거나 또는 어려운 難關을 아무 탈 없이 두사람의 協力으로 克服할 수 있었다면 그들의 友情은 더욱 強化될 것이다. 두사람의 友情과 그들이 共同으로 얻을 수 있었던 成功感은 相互 依存的이다」

우리는 여기서 友情과 成功感과의 關係를 發見할 수 있다.

南北間의 接觸의 경우에도 相互協力を 통하여 成功感を 얻을 수 있는 경우에 接觸은 더욱 促進될 것이다.

(2) 南北間의 接觸과 技術增進

南北間의 接觸을 爲한 基準으로서 技術增進 (positive function or skill promotion)은 特定한 接觸形態 그 自体가 갖는 屬性이 接觸의 技術을 增進시키느냐의 與否를 判斷하기 爲한 것이다. 이것은 두가지의 作用面에서 分離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特定한 接觸形態의 接觸過程을 通해서 얻은 知識이 다른 形態의 새로운 接觸을 誘發케 하는 波及作用이고 다른 하나는 同一分野內에서 接觸을 繼續 擴大하고 維持하려는 意慾을 느끼게 하는 作用이다.

一般的으로 이러한 技術增進은 그것이 波及作用이든 維持・擴大作用이든 間에 根本적으로 接觸의 成功感에서 出發한다. 다시 말하면 技術增進의 作用을 생각할 때 特定한 接觸形態의 경우 그것이 純粹한 機能面에서 相互體制間의 利害關係를 充足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接觸이 中斷된다. 따라서 相互의 利益이 介在하는 경우 그 利益自体가 接觸을 維持하고 擴大시키며 다른 分野나 方法으로 波及해 나가는 動機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南北間의 技術增進은 接觸을 通한 相互間의 滿足感 내지는 成功感和 一次的으로 關聯시킬 수가 있으며 特定接觸形態의 接觸에서 成功感이나 滿足感を 確保할 수 있다고 豫測될 경우 그것은 技術增進의 여지가 있다고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接觸의 技術增進의 問題는 國際機構의 統合을 機能的인 分野에서 始作해야 된다고 主張하는 機能主義論者들로부터 좋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機能主義의 原理論的 要素는 國家間의 機能的 分野의

共同協力は 傳播의 機能 (Spill-over capacity)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機能主義가 最初로 提起되었을 當時의 D. Mitrany 教授는 모든 機能的 分野의 共同課業은 傳播機能 또는 波及效果를 갖고 있다는 論理的 假說에서 出發했다. 그러나 소위 新機能主義 學派라 불리는 E. Haas, Joseph S. Nye 등의 主張에 依하면 機能主義 本來의 波及效果는 Mitrany 教授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絶對的인 것이 아니라고 본다. 즉 特定한 共同課業의 경우 그 結果가 반드시 發展的인 方向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反對方向으로 나타나므로서 接觸의 波及이나 維持・擴大作用을 오히려 阻害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本 研究에서 提起한 技術增進의 概念에서 볼 때 如何한 形態의 接觸에 있어서도 接觸過程에서 隨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波及作用 내지 維持・擴大作用을 豫測할 必要가 있음을 말해 준다.

一般的으로 이러한 豫測은 特定한 接觸形態가 南北間의 接觸을 通해서 얻을 수 있으리라는 結果에 對한 期待感의 程度에 따라 나타낼 수 있다. 勿論 이러한 結果는 特定한 接觸形態의 接觸에서 처음부터 얻으리라 目的하는 「意圖된 結果」(intended result)와 처음부터 期待하지 못했던 「例外的 結果」(Unintended result)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例外的 結果」에 對해서는 接觸이 일단 이루어지고 난 以後에 考慮될 性質의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豫測치 못한 結果는 暫定的인 것이고 또한 二次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南北接觸 基準으로서 技術增進은 特定한 接觸形態를 現在の 与件으로 分析하여서 成功의 期待値를 産出하고 豫測해보는 次元에서만 意味를 갖는다.

라. 接觸의 制約變數와 戰略變數

앞에서 南北接觸可能分野發見을 爲한 세가지 基準을 言及하였다. 우선 이것이 判斷基準을 接觸의 試圖의 面과 接觸의 維持・擴大의 面을 分離하여 把握하고 接觸可能形態의 制斷을 爲한 基準間의 相互關係를 說明하고자 한다.

同質性(identity)은 두가지의 屬性 즉 特定分野에 對한 南北間의 價值構造의 同質性和 그 分野의 經驗的 同質性的 一을 兩側面에서 說明하였다. 그리고 政治文化는 價值(value), 信念體系(belief system), 感情的 態度(emotional attitudes), 로 그 屬性을 把握하고, 技術增進은 成功感(experience of success)으로 把握하였다.

南北間의 여하한 接觸形態도 各各의 判斷基準의 屬性和 接觸의 試圖, 維持擴大와의 關係로 說明할 수 있다.

우선 南北間에 全혀 異質化된 價值構造를 갖는 形態의 接觸은 생각키 힘들다. 27年동안의 固化되어 버린 南北間의 變化는 生活과 思考의 面에서는 相當한 差異를 가져왔다. 이것은 南北의 接觸을 單純히 歷史나 血統만 믿고 同一性を 意識한 接觸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 言語의 差異는 勿論이고 文化,

接觸과 判斷基準의 屬性

判 斷 基 準	屬 性
同 質 性 (I D)	價值構造의 同質性, 經驗的 同質性
政 治 文 化 (P . C)	政治的, 價值體系, 信念體系, 感情的態度
技 術 增 進 (S . P)	成 功 感
接 觸	試圖, 維持, 擴大

芸術等の 分野에서도 그것 自体가 같은 價值構造의 懸隔한 差異를 包含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것은 특히 解放後世代의 境遇 - 즉 南北分斷 以後에 世代 - 더욱 懸隔하다. 一例로 “피바다”라는 歌劇이 “살짜기 읍서에”와 同一하게 歌劇이라는 價值構造를 느끼지 못한다는 点이다. 이것은 多분히 雙方體制의 政治理念과도 關聯되어있고, 政治宣傳과도 關聯될 수 있다. 左右間 “歌劇”의 價值構造가 다른 限 南北間의 “歌劇”에 關한 相互交流나 研究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明若燭火한 일이다.

反面에 南北間의 經驗的 同質性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 亦是 歷史的 經驗을 말하는 것으로서 歷史나 血統等 民族으로써 갖는 歷史的 單一意識과 같은 것이다. 아스카의 古墳에 關한 南北學者의 共同研究가 이마 試圖된 일이 있다.

이것은 多分히 南北間의 “아스카 古墳”에 對하여 우리 民族의 歷史라는 面에서 同一意識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南北間의 經驗的統一性(empirical identity)가 있는 形態일수록 그 接觸의 試圖가 可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同質性은 接觸의 試圖와 關聯하여 두가지의 關聯性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 南北間의 價值構造는 接觸의 試圖와 關聯이 있다.

둘째, 南北間의 歷史的 또는 經驗的 同質性은 接觸의 試圖를 容易하게 한다.

다음은 政治文化面 即 體制守護의 側面에 關하여 接觸의 試圖와 關聯性을 考察하겠다.

政治文化는 그 細部基準으로서 政治的 價值體系, 政治的 信念體系 즉 믿음(beliefs) 그리고 感情的 態度로 說明하였다.

적어도 南北間의 接觸을 想定할 때 어느 形態이든 間에 相互의 體制維持의 立場을 떠나서 說明할 수 없다.

이것은 同一分斷된 兩體制가 결코 어느 一方 體制에 依한 我邦 體制의 變質이나 體制維持에 影響을 미치는 경우에는 어떠한 接觸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지난 4半世紀以上 南北은 各各 相異한 理念體制下에서 相異한 政治와 手段으로 各己의 體制를 確固히 해왔다는 것은 南北間의 接觸에 있어 重要한 前提가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韓半島內의 唯一合法性을 一方體制만 갖고 있다는 問題와는 別個의 것이다. 東·西獨의 경우 「部分秩序理論」이라는 새로운 概念을 確立하였다. 즉 東獨과의 接觸過程에

서 相對方의 國體를 認定하느냐 與否를 論難하기 以前에 東·西獨의 諸般接觸을 同一民族의 統合을 指向하는 部分秩序로서 理解하고 있다. 이러한 論理는 南北間의 接觸過程에서도 導入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如何든 南北間의 接觸은 一方體制가 影響을 주어 다른 體制의 內部變質을 可能케 하는 要因이 있을 경우에는 接觸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勿論 이런 前提는 接觸의 試圖의 面을 中心으로 考察된 것이다. 다만 前記한 바와 같이 政治的 努力이 強力하게 接觸을 促進을 追求한다면 다소간의 相互政治文化에 影響을 미치는 形態 즉 相互間 조그만 變質의 要素를 包含하는 形態에도 接觸의 可能性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接觸의 試圖面에서 볼 때 적어도 南北間의 雙方이 갖는 政治文化와의 關係는 다음으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 ; 相互의 政治文化의 影響과는 無關한 分野일 수록 接觸의 可能性이 높다.

둘째 ; 政治的 努力이 傾注되면 相互政治文化에 若干의 影響을 주는 경우라도 接觸의 可能性이 있다.

끝으로 技術增進과 接觸의 維持·擴大와의 關係를 考察하겠다.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如何한 接觸의 境遇도 相互의 接觸過程을 通해 接觸分野의 發展에 寄與하거나 또는 도움이 되는 結果를 얻지 못할 때 이 接觸은 그 試圖에서만 그치고 말 수도 있다.

이러한 接觸의 도움·發展이 되는 結果는 곧 接觸을 通하여 얻

은 成功感을 말하거나 또는 接觸過程에서 얻은 經驗的 知識을 말하며 이것이 波及效果를 일으킨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다.

첫째 ; 南北間의 接觸은 技術增進이 있는 것일 경우 維持・擴大가 可能하다.

以上の 세가지 判斷基準을 각각 接觸의 試圖와 維持・擴大面에서 考察하였다.

여기서 同質性과 政治文化는 接觸의 試圖를 爲한 制約變數인데 反하여 技術增進은 이들 變數에 波及作用을 일으키는 戰略變數로 把握할 수 있다. 따라서 南北間의 接觸을 이 세가지 變數와의 關係에서 다음과 같이 把握할 수 있다.

南北間의 接觸可能形態(接觸의 試圖+維持・擴大)는 ;

$$X = f(ID, PC, SP \dots\dots\dots) + \text{政治的 勢力} + \text{國際的 與件}$$

└── 定 ─┘

여기서 X는 接觸의 試圖와 維持・擴大를 同時에 包括하는 概念이며, 政治的努力이란 各要素를 보다 擴張시킬 수 있는 固定變數(즉 本論文의 展開上 固定的인 것으로 본다)로 본다. 그리고 國際的 與件은 本論文에서 前提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固定變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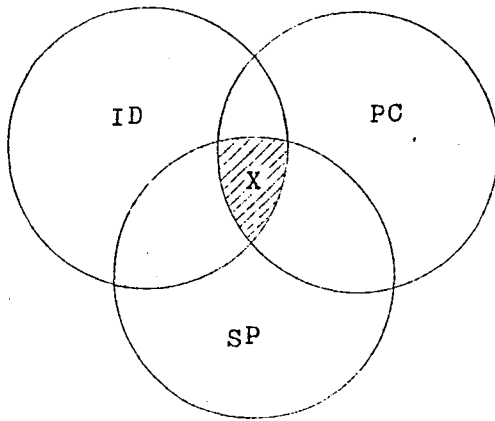
그리고 ID, PC, SP을 除外한 其他의 接觸과 關聯된 要因은 本研究에서 一定하다고 본다.

따라서 위의 式에서 政治的 努力과 國際的 與件을 排除하면 ;

$$X = f(ID, PC, SP) \text{로 表記된다.}$$

이것을 圖形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接觸의 條件



左圖에서 보는 바와같이 南北
間의 接觸은 세가지의 基準을
滿足시키는 範圍 “ X ”에서
可能하다. 즉 $ID \cap PC \cap SP$
의 條件을 갖추는 接觸形態가
接觸可能形態가 된다.

4. 南北接觸의 可能範圍

同 節 第 四 節 附 錄 第 一 節 . 1

同 節 第 四 節 附 錄 第 二 節 . 1

4. 南北接觸의 範圍 :

接觸分野, 接觸方法, 接觸形態

以上 檢討해온 南北對話의 展望 및 接觸基準에 立脚해 볼 때 南北接觸의 可能範圍를 想定할 수 있다. 勿論 새로운 對話가 南北間에 이루어지면 적어도 우리측이 主張한 15個分野 全般에 걸쳐 接觸이 可能한 範圍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는 보다 論理的 立場에 서서 南北接觸可能範圍를 接觸分野, 接觸方法으로 일단 分類하고, 이 分類에 基盤한 下位概念間 即 各 分野와 方法의 2次的 屬性間的 結合으로 된 接觸形態를 想定해 보려고 한다.

가. 接觸分野

歴史的으로 東·西獨간은 「아데나워」時代 (1949 ~ 1963)부터 部分的인 接觸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 韓半島의 경우와는 差異가 있다. 그러다가 1961年 백림봉쇄事件 以後에 一時 중단되었으며 「에르하르트」時代(1963 ~ 66)에는 비교적 不振한 狀態를 免치 못하였다가 1966年度에 다시 活氣를 띄기 始作하여 「키싱거·브란트」聯政時代(1966 ~ 69) 및 「브란트」時代(1969 ~)에 本裕化된 接觸을 통한 統獨段階로 접어들고 있다.

東·西獨간의 接近概念의 出発點은

- ① 事實上의 「두개의 獨逸國家」가 存在하고
- ② 統合(統一)은 가까운 將來에 可能하지 않고
- ③ 接近과 接觸의 포기는 緊張을 가져오고, 分裂을 永久化하며, 獨逸人의 統合을 과 과하고 離散家族의 生活를 어렵게 만든다는 3

가지 根拠에 立脚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東·西獨 關係의 變化는 「아테나워」→「에르하루트」→「키싱거」의 統治過程에서 쌓여진 強力한 安定力을 基盤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點을 看過할 수 없다.

東·西獨間의 接觸을 爲한 諸般過程을 檢討하여 본 결과 어느 정도 接觸이 成功段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接觸分野이다.

- ① 交易分野
- ② 交通分野
- ③ 通信分野
- ④ 社会·文化分野
 - ㉠ 文化·芸術
 - ㉡ 出版
 - ㉢ 스포츠
 - ㉣ 宗 教

여기에 최소한 試圖의 努力을 보인 것까지 包含시키면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 ① 人道的 分野
- ② 文化·芸術分野
- ③ 言論分野 (新聞, 雜誌包含)
- ④ 觀光分野 (旅行往来)
- ⑤ 學術分野
- ⑥ 스포츠分野

- ⑦ 經濟・交易分野
- ⑧ 交通・通信分野
- ⑨ 醫・藥學分野
- ⑩ 科學・技術分野
- ⑪ 出版分野
- ⑫ 通信分野
- ⑬ 宗教分野

이에 反해 南北間의 接觸關係를 非敏感分野와 敏感分野로 나누어 우선 非敏感分野의 接觸이 시작되고 다음 敏感分野로 接觸이 擴大되어갈 것이라고 展望하는 見解가 있다.

이 見解에 따르면 南北間의 接觸分野를 다음과 같이 分類해 낼 수 있다.

- ① 學術分野
- ② 專門分野
- ③ 通信, 放送分野
- ④ 스포츠分野
- ⑤ 民俗藝術分野
- ⑥ 交易分野
- ⑦ 醫學 및 保健分野
- ⑧ 造船 및 컴퓨터
- ⑨ 航空交通分野
- ⑩ 開發分野

그러나 여기서 提示된 分類는 前記한 一次的 分類와 二次的 分

類가 상호 混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南北間의 接觸可能 形態-分野와 方法 각기의 2次觸速性的 結合-을 提示한 것이므로 이것으로서 接觸分野를 演譯하기에는 좀 힘든 것이다.

최근 70年代의 南北間의 緊張緩和를 爲한 努力의 高潮에 따라 國內에서도 이 接觸關係에 關한 研究가 이루어 지고 있다. 大略 이러한 研究에서 나타나는 分野의 分類는 다음과 같다.

- ① 라디오。放送分野
- ② 人道的 分野
- ③ 體育分野
- ④ 藝術分野
- ⑤ 文化。映畵分野
- ⑥ 出版分野
- ⑦ 經濟分野
- ⑧ 氣象分野

이상의 各 分類의 檢討에서 基本的으로 다음의 分類方式에 一致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 ① 文化。藝術에 關係되는 分野
- ② 學術 出版에 關係되는 分野
- ③ 經濟。交易에 關係되는 分野
- ④ 交通。通信에 關係되는 分野
- ⑤ 體育分野

그리고 各 경우에 特異한 것을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觀光分野

- ② 医·藥学分野
- ③ 科学·技術分野
- ④ 宗教分野
- ⑤ 保健分野
- ⑥ 改竅分野
- ⑦ 氣象分野

여기서 ①의 觀光分野, ②, ⑤를 합쳐 医療分野 및 ⑦의 氣象分野를 첨가하고, 해양분야를 기상과 합하여 해양, 기상분야로 독립시켰다. 단, 人道的分野는 政治와 인도의 問題로서 南北間의 모든 接觸에 基抵하는 것으로 把握하여 배제하였다.

勿論 各 分野 相互間에 그 限界가 明確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나 比較的 廣의의 概念인 學術·經濟 및 文化·藝術分野는 나머지 다른 관련 相關분야를 除外한 部分에 만 한정시킨다.

앞으로 다루게 될 南·北間의 接觸分野에 관한 一次的 分類는 다음과 같다.

南 北 接 触 分 野

1	2	3	4	5
海洋·氣象	學 術	文化·藝術	言論·出版	體 育
6	7	8	9	
交通·通信	學 術	觀 光	医 藥	

나. 接觸方法

前記한 바와 같이 接觸分野와 接觸方法의 細部屬性의 상호결합으로 接觸可能形態를 構成한다고 說明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接觸可能形態를 構成하는 外廓範圍의 다른 하나인 接觸의 方法에 關한 1次的分類를 하려고 한다.

앞에서 東·西獨閩의 接觸 先例를 通하여 可能的 接觸分野를 分類한대로 그 方法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서한접촉에 의한 方法
- ② 인적왕래 (시찰 여행 등)를 통한 方法
- ③ 공동개발을 통한 方法
- ④ 물자의 교류 또는 교환을 통한 方法
- ⑤ 공동회의 形式을 통한 方法 즉 세미나, 공개토론, 硏究發表會 등
- ⑥ 技術이나 정보를 交換하는 方法
- ⑦ 共同事業 (올림픽 單一팀 구성 등)을 통한 方法 등이다.

또한 最近의 「와싱턴」 專門家 分析에 의하면 다음 5가지의 分類가 可能하다.

- ① 學者, 專門家の 相互往來를 통한 方法
- ② 뉴스의 교환
- ③ 民俗藝術 團體 등의 交換公演
- ④ 結核, 나병 등 질병 퇴치를 위한 共同努力
- ⑤ 醫學 및 生物學에 關한 技術情報 区分

反面에 最近의 國內硏究에 의하여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기자, 觀光人, 家族 등의 인사왕래
- ② 國際競技 共同出戰, 올림픽 單一팀 構成 등의 共同事業
- ③ 觀光, 文化財, 古蹟 등 또는 職業部分別 映画 등의 相互交換
- ④ T.V 放映을 통한 交流
- ⑤ 공동어로 海外商品展示場 등의 共同事業
- ⑥ 氣象部分의 情報交換

이러한 계 分類에 立脚하여 大體로 南北間의 接觸方法은 다음 4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 ① 相互往來
- ② 物質交流
- ③ 技術, 情報交流
- ④ 共同事業 共同研究

勿論 書信接觸이나 事前對話 등의 方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느接觸의 경우에도 一般的 過程으로 利用될 수 있는 性格의 것으로 본다. 人事往來는 주로 相互의 接觸의 수단의 하나로 學者, 專門家 및 分野別人事의 親善訪問 또는 視察에서 부터 相互의 個人, 團體間의 訪問公演, 방문시합(親善競技) 등의 範圍까지 包含시킨다. 그러나 南北赤十字會談의 경우처럼 南北의 學者나 專門家가 서늘이나 平壤에서 세미나의 개최, 研究發表會, 共同答辭 등을 하는 境遇에는 共同研究의 方法으로 간주한다.

物質交流는 國家間의 交易과 同一한 意味로 쓰여진다. 그러나 特産物의 交流, 專門書籍의 交換 또는 이동가능한 古蹟의 交換 展示까지 包含시킨다. 단, 人的인 南北相互往來를 배제한다.

技術情報交流은 放送 또는 通信을 통한 技術情報의 交換에서 부터 專門機構를 통한 交換, 技術協助까지 包含시킨다. 여기서도 物質交 貨交流에서와 같이 人的往來를 배제한 範圍에서의 技術, 情報의 交 流을 意味한다.

그리고 공동사업, 공동연구는 주로 비무장지대의 개발 이라든지, 海外共同 展示場 開設 및 올림픽 單一팀 構成등 南北이 同一主體 로서 行할 수 있는 事業이나 研究를 말한다.

× × ×

이 상에서 分類한 南北間의 接觸分野와 接觸方法 각각 終橫으로 나열하여 다음과 같이 表記할 수 있다.

接觸分野와 接觸方法

接觸 方法 \ 接觸 分野	① 海洋 氣象	② 經濟	③ 文化 藝術	④ 言論 出版	⑤ 體育	⑥ 交通 通信	⑦ 學術	⑧ 觀光	⑨ 醫藥
A. 人的往來	1A	2A	3A	4A					
B. 物質交流	1B	2B	3B	4B					
C. 技術情報交流	1C	2C	3C	4C					
D. 共同事業 共同研究 (Common Project)	1D	2D	3D	4D					

※ 1A, 2A 등은 分野와 方法을 結合시킨 接觸形態를 指稱하는 表記名이다.

다. 接觸形態

以上에서 分類된 接觸分野와 接觸方法을 各各의 2次的 屬性을 中心으로 結合하여 諸般 接觸形態를 細分할 수 있다. 다음은 지금까지 南北間의 接觸形態로 言及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言及할 余地가 있는 것을 中心으로 만들어진 도표이다.

여기에 表示된 1 A, 1 B . . . 9 C, 9 D는 接觸分野의 分類기호와 接觸方法의 分類기호가 結合된 것을 意味한다. 다시 말하면 諸般 接觸형태의 外廓範圍이다.

接觸의 諸形態

1	A	海洋, 氣象分野의 專門家, 學者의 親善視察
1	B	
1	C	氣象, 情報交流
1	D	水資源分布共同研究, 海外共同漁市場開設, 共同漁勞, 南北漁勞 自由化
2	A	經濟人親善訪問, 視察(産業視察)
2	B	상징적 特産物交流, 商品去來(相互補完的인 完製品, 源資材 및 土産物), 共同商品展示場에서 商品交流, 南北交易(展示場을 통한 交易, 海上交易, 港口를 통한 交易, 陸上交易)

2	C	共產，自由圈 貿易情報交換，重輕工業技術協力
2	D	海外共同商品展示場 開設，經濟人會議（南北韓經濟協助 에 관한）資本協力（直接投資，合作投資），下請生產， 共同製造。
3	A	公演藝術（民俗藝術團體） 交流，文化，古蹟視察，風習， 家庭行事를 통한 家族交流，個別藝術家交流 其他藝術 團體交流（리틀엔젤스，에그린음악단，市交響音樂團等）
3	B	民俗古蹟等 移動可能한 品目の 交換展示，写真資料의 交換展示，文化藝術映画交流（生活文画映画，觀光文化財 古蹟映画交流 職業別 部門別映画交流，其他 音樂，藝 術，彫刻，写真，무용等 諸分野의 相互交流
3	C	建築技術，情報交換
3	D	古蹟 및 民俗文化踏査 및 共同研究 言語放言의 共 同研究 風俗의 共同研究
4	A	記者交流，言論人交流，學生交流
4	B	歷史 및 專門書籍目錄 및 書籍交流（歷史研究書，自 然科學応用科學），藝術，社會科學，分野의 書籍交流， 日刊新聞，雜誌，畫報，學術紙交流

4	C	出版技術交流
4	D	民族史 및 專門的分野의 共同出版, 南北共同版出版(統一新聞研究論文集), 非專門分野書籍共同出版, 芸術書籍共同出版, 文芸書籍共同出版(詩, 小說)
5	A	體育人親善訪問 및 試範競技, 團體競技交換開催(서울~平壤 축구대회, 大學生競技大會) 部分別競技大會, 교전경기(활쏘기, 씨름, 그네뛰기)
5	B	스포츠장비 交換
5	C	個人技, 團體競技錄化 필름交換
5	D	올림픽 및 國際競技共同出戰, 南北共同體育館設立
6	A	親善訪問, 視察
6	B	家族間의 安否書信往來, 親戚親友間 年賀狀 禮物往來, T, V 放映交流
6	C	라디오다이얼解除를 통한 「뉴스」 情報交換(家族親知의 消息傳達)
6	D	輸送運輸手段 및 施設利用(航路開設, 港灣利用, 鐵道 및 高速道路利用), 南北技術 專門情報센터設立(長距離電話, Telex 등) 國際航空線延長, 라디오共同聽取,

7	A	學者交流
7	B	4 B 參照
7	C	專門知識，理論交換（醫，藥學，天文氣象學，地球物理學，農學生物學，化學，考古學），人文，社會，文藝分野知識，理論交換
7	D	非武裝地帶動植物分布共同研究，非武裝地帶動植物生態研究，共同發表會，南北山林共同調查，韓半島高山植物踏查研究，韓國地質共同調查
8	A	觀光人交流（2 A，3 A，5 A 參照）
8	B	觀光寫真交流，觀光映畫交流
8	C	觀光技術 情報交換
8	D	海外共同觀光紹介（共同觀光캠프 필답간），非武裝地帶共同觀光開發
9	A	專門家의 親善訪問
9	B	医薬品（약건，傳染病預防藥）交換
9	C	醫，藥學分野의 情報交流（4 B，7 C 參照）
9	D	結核，나병等 韓國에서 만남되고 있는 질병퇴치를 위한 共同研究

5. 南北接觸의 優先順位

2. 國北溪源記 卷之二

5. 南北接觸의 優先順位

南北接觸은 위에서 論及한 바와 같이 主客觀的與件의 成熟에 따라 段階的으로 試圖해야 한다. 同時에 國家利益의 追求와 統一問題의 解決에 接近이라는 明確한 目的 設定이 大前提로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國家利益과 符合되며 또 統一問題에서 韓國이 主導權을 掌握하는데 寄與할 수 있는 南北接觸일 경우에 그의 展開가 意義를 갖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試圖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主客觀的 與件에 비추어 어떤 南北接觸이 可能한가를 먼저 檢討하고 그 가운데서 國家利益과 韓國의 統一政策에 符合되는 交流를 選定해서 그의 展開를 試圖해야 할 것이다.

現時點에서의 主客觀的 與件의 展望에서 南北 交流의 性格上的 段階는 韓國政府가 이미 表明한 바와 같이 人道的問題의 接觸에서 부터 非政治的 問題로 發展시키고 마지막에 政治的 問題를 다루는 것이 가장 合理的이다.

한편 南北 接觸의 形態는 韓國政府의 唯一 合法性이 絶對적으로 되고 있는 現在의 條件에서는 非政府間의 接觸 즉 民間 團體間의 接觸이 되어야 한다. 勿論 北韓에는 純粹한 意味에서의 民間 團體는 存在하지 않고 모든 社會團體 및 그밖에 組織이 北傀 勞動黨의 傘下에 있기는 하지만 形式的으로는 非 政府的인 것이 적지 않으므로 그 形式을 名分으로 세운다면 北韓의 社會 團體와 이에 該當하는 南韓의 民間 團體間의 接觸은 韓國政府의 唯一 合

法性이라는 法的 要求에 違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다.

現在 進行中에 있는 南北 赤十字 會談이 法律上的 論争点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좋은 先例로 되고 있는 將次的 南北韓 社會團體 間의 接觸에 길을 열어주고 있다.

例를 든다면 南北韓 學術交流는 南韓의 韓國 學術院과 北韓의 科學院間에 記者交流는 南韓의 言論人 協會와 北韓의 記者 委員會 間에 體育交流는 南韓의 大韓體育會와 北韓體育指導委員會間에 各各 交流를 實現시킬 수 있을 것이다.

北韓側에서 65年 2月 北韓의 氷上協會 65年 4月 北韓의 體育指導委員會 水泳分科委員會 66年 1月 北韓의 國際旅行社 66年 6月 北韓 舞踊家同盟 中央委員會 66年 8月 北韓의 美術家 同盟 中央委員會가 各各 團體 責任者의 이름으로 南韓의 該當分 野에 對해서 交流를 提議한 일이 있다.

이와 같은 南北 交流의 段階와 形態를 考慮하면서 南北 接觸의 具體的 順次를 研究해 보기로 한다.

우선 71年 9月 20日부터 進行中에 있는 南北 赤十字 會談은 앞으로의 非政府間 南北接觸의 幅넓은 可能性을 시사해 주고 있다. 는 點을 指摘해 둘 必要가 있으며 이 會談이 大韓 赤十字社의 計劃대로 南北으로 흘러져 있는 離散 家族의 書信 交換뿐만 아니라 相互 訪問까지 實現시키는 問題를 解決한다면 事實上 南北間의 人士 交流를 實現시키는 것이 되며 同時에 多少間의 선물 携 帶가 許容된다면 交易은 아니지만 事實上 物資 交流가 이루어진 셈이 된다.

어떻든 南北 赤十字 會談을 人道的 問題의 解決이 基本 原則으로 되고 있는 만큼 人道的 問題의 解決을 爲한 南北交流의 試圖는 이미 展開되고 있는 기정 事實로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南北交流 가운데 가장 合理的인 첫 順序로 보아지는 人道的 南北 交流는 이미 試圖되고 있음으로 本 課題의 研究에서는 除外될 수 있다. 그러나 그 內容 問題에서 言及해 두어야 할 點은 北傀가 離散 家族 찾기 運動을 純粹한 民族的 立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同 運動을 所謂 「南朝鮮 革命」의 促進에 利用하려는 主要 目的을 두고 있는 만큼 그의 그와 같은 野望을 封鎖하기 爲해서는 離散 家族間의 書信 往來 및 相互 訪問이 實現될 경우에 徹底한 統制와 管理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이 問題에서 가장 重要한 點은 南北韓의 政治 社會 體制의 比較에서 北傀의 그것이 보다 優越하다고 証明하기 爲한 宣傳的 策動을 어떻게 封鎖하고, 反面 北韓 同胞들의 마음을 大韓民國의 便으로 보다 깊게 끌어 당기기 爲해서 어떠한 方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냐는 것이다. 다음 北韓이 同 交流의 過程을 이때까지 實施해 온 對南工作의 보다 容易하고 보다 効率的 手段을 利用하려고 노릴 것은 分명한 일인 만큼 이를 封鎖하는 對策도 아울러 徹底하게 講究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人道的 南北 交流의 다음 段階의 交流는 體育交流, 記者交流, 學術交流, 文化交流, 經濟交流 등 亦是 非政治的 交流를 想定해 볼 수 있다. 이 問題에서 한가지 指摘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人道的 問題를 包含해서 어떠한 南北 交流를 莫論하고 事實性 政治性

이 介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없다는 點이다. 韓國과 北韓은 다 같이 어떤 南北 交流에서도 各己의 對立되는 統一政策 乃至 戰略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列挙한 南北 交流의 種類 가운데 韓國側이 그의 實施를 試圖해야 할 順次를 定하고 그 理由를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가. 南北接觸의 첫 順位는 産業關係의 科學交流가 되어야 하다고 본다.

勿論 非 政府間의 接觸이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韓國 學術院과 北韓의 科學院 사이에 實施할 수 있고 또는 보다 좁은 範圍의 科學 分科間의 交流도 實施할 수 있다. 産業關係의 科學交流가 우선적으로 試圖되어야 한다는 理由는 첫째, 다른 어떤 分野의 交流보다도 政治性이 덜 介在될 수 있고 同時에 北韓에 同 交流를 政治적으로 利用할 危險性이 적다는 點이며, 둘째, 南北交流는 大衆的 交流가 먼저 實施되는 것보다 되도록 水準이 높은 知識 水準과 判斷力을 가진 知性人들 사이에 먼저 實施하는 것이 韓國의 밝은 面을 北韓 사람들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同時에 北韓의 政治的 策略에 말려 들어 갈 危險性이 적다고 본다.

또한 産業關係 科學者들간의 交流는 比較的 範圍가 좁고 조용한 接觸이 되어 物議를 일으킬 可能性이 적다고 보아 將次의 다른 種類의 南北交流를 實施하는데 좋은 前例를 남겨 놓게 될 것으로 觀測된다. 세째, 産業關係 科學交流는 兩北韓의 産業發展에 各各 多少間 寄與될 수 있다는 셈이다. 이 寄與는 크게 評價할 수

없겠으나 그것이 크고 적고 간에 南北韓은 이러한 交流에서 理解關係의 共通點을 처음으로 찾아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장차 보다 重要的 南北交流를 實施하는데 相互 協調의 精神的 乃至 心理的 土臺가 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産業關係 科學交流에서 가장 適合한 것은 軍事的 潛在力이라는 問題에서 의의가 가장 적은 農業部門의 科學이다.

나. 記者 交流

記者交流의 順次를 産業關係의 科學交流 뒤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記者交流를 政治性的 介在가 比較的 크며 한편 南北韓이 다같이 特히 北韓이 北韓의 어두운 面을 감추고 밝은 面만을 들어 宣傳하려고 全力을 傾注할 것이 分명한 만큼 物議를 일으켜 南北交流에 어두운 前例를 남길 可能性이 比較的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記者交流를 다른 交流에 先行시켜 두번째 順位로 올려 놓아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다.

첫째, 韓國 記者들은 大體로 自由民族主義의 精神이 몸에 젖어 있을 程度로 깊기 때문에 北韓으로부터 所謂 洗腦의 對象이 되기 어렵고 相當한 統制가운데서도 北韓의 實情을 옳게 把握해 낼 수 있는 感覺과 眼識을 갖고 있다는 點이다.

둘째, 南韓을 訪問하는 北韓 記者들은 所謂 党性이 強한 者로 精選될 것이지만 共產主義體制속에서도 記者들은 自由主義的 傾向을 完全히 排除할 수 없다고 보아 南韓의 自由로운 社會生活의 모습에서 多少間 感銘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長期的 眼目으로

보아 北韓 自由化에 寄與될 수 있고 同時에 個人 崇拜와 權威主義가 바탕으로 되고 있는 金日成 權力體制와 對內外 政策에 否定的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北韓 民衆의 韓國觀을 改善하는데도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될 것으로 보며 이것은 北韓의 戰爭準備政策에 打擊이 될 것이다. 北韓은 防禦的 目的과 함께 攻擊的 目的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戰爭準備를 韓國과 美國側으로부터의 侵攻에 對備한 것이라고 하여 正當化시키고 있다. 記者交流가 媒介로 되어 北韓 民衆의 韓國觀을 多少間 改善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北韓의 새 戰爭도발음모는 打擊을 받게 된다.

세계, 南北 記者交流는 民間團體間의 交流의 形態를 갖출 수 있으며 한편 記者交流는 1960年代 以來 國內에서 革新系와 保守系 人士를 莫論하고 적지 않은 政治人과 知識人들이 그의 實現을 主張해 왔다는 歷史的 事實에 비추어 國民輿論의 幅넓은 共感을 獲得하기가 比較的 容易하다는 點이다.

勿論 記者交流가 韓國側에게만 利點이 있고 北韓에게는 失點만 있다면 北韓이 이를 拒否할 것이라는 論理에 따라 同交流가 實現된다는 것은 北韓으로서도 노리는 利點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韓國側은 큰 利益을 거두기 위해서 작은 代價와 危險을 覺悟하면서 損害를 最少限으로 줄이기 위해 適當한 對策이 講究되어야 한다.

다. 體育 交流

體育交流를 産業關係 科學交流와 記者交流 다음에 세번째

順位로 올려 놓는 것은 體育交流가 어떤 交流보다도 全國民의 지대한 關心속에서 進行되면서 民族의 同一性을 새삼스러히 되 살리는 強力한 자극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理想的인 統一方向의 追求보다 感傷的 統一 感覺이 앞설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體育交流는 다른 交流보다도 國民大衆의 念願이 깊은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南北 交流가 始作되어 너무 뒤로 미루면 國民의 不滿이 클 可能性이 있다.

體育 交流에서 韓國側이 얻을 수 있는 利得點은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하고 특히 北韓의 好戰性이 民衆의 보이지 않는 壓力으로 둔화시키는데는 이것이 다른 交流보다 有効하며 한편 北韓은 南北交流에 當하는 北韓 體育選手를 所謂 党性이 강한 者로만 精選할 수 없는데다가 어떤 社會의 體育選手든지 獨裁에는 融合되기 어렵고 自由를 보다 갈망하는 것이 共通的 特性으로 되고 있어서 體育交流는 北韓 民衆의 韓國觀을 改善하는데 役割을 할 수 있는 등 等 韓國側에게는 有利한 面이 많은 反面 北韓側에게는 不利한 面이 많다고 보겠다.

라. 消費物資의 交易

物資의 交易은 形態上으로는 民間 交易이 되더라도 北韓에서는 個人 企業이 全廢되고 있는 만큼 事實上 北韓을 相對로 하는 交易이라는 印象이 짙게 될 것으로 보아 現在와 같은 主客觀的 與件에서는 相當한 對北 政策의 轉換이 先行되어야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物資交易을 消費物資에 局限시켜 놓고 본다면 韓國側에 相對적으로 有利하다고 보여진다. 北韓에서 生産되는 消費品의 質이 粗雜하고 品種이 豊富하지 못하다는 것은 北韓이 스스로 自認하는 바이다. 따라서 品種이 優秀하고 品種이 多樣的한 消費品을 北韓에 보낸다면 北韓 民衆으로 하여금 南韓生活相에 對한 認識을 새로이 하는 同時에 北韓의 獨善的인 宣傳에 懷疑를 느끼게 하는 動機가 될 것이다. 勿論 南北交易에서 經濟的 理解關係를 主要 目的으로 追求해서는 안된다.

마. 文化 交流

北韓은 모든 文化에 党性을 強力히 要求하고 있기 때문에 文化交流는 形態上 非政治的 南北 交流 가운데 가장 強하게 政治性이 介在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文化 交流는 非政治 交流에서 마지막 順次에서 考慮해 볼 수 있는 問題이다. 北韓이 要求하는 文化의 党性이란 어떤 分野의 文化를 莫論하고 모두 北韓 勞動黨의 政策을 받들고 이를 正當化시키는데 主題를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文化問題에 있어서의 南北間 對話 및 接觸의 廣場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北韓에서는 古典的 民族文化도 所謂 「社會主義的 事實主義」의 歷史的 傳統이라는 범주에 넣고 거의 다 改作 或은 위조하고 있다.

以上에서 말한 것은 人道的 問題의 南北 交流와 非政治的 形態의 交流이고 다음 段階에 主客觀的 與件이 갖추어지게 되면 政治的 接觸이 試圖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本論文에서의 主題에는 同 政治的 接觸問題는 包含되어 있지 않음으로 그에 關해서는 論及하지 않는다.

6. 南北接觸의 具體的 實踐方案

6. 南北接觸의 具體的實踐 方案

平和的인 方法으로 異質體制를 單一化 乃至 同質化시키는 方法은 接觸을 通해 異質的인 體制의 諸構造가 收斂化 또는 同質化해 가는 道理 밖에 없다.

本 研究는 이러한 基本立場에 서서 南北接觸에 對備한 前提를 設定하고 接觸基準, 接觸範圍, 接觸優先順位에 關하여 概略的인 檢討를 해 왔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前記 諸研究와 關聯하여서 實際로 接觸이 이루어질 경우에 特定接觸形態에 對한 基本的인 事項을 韓國과 北韓의 立場에 서서 長點, 短點으로 区分하고 또 各一方이 考慮해야 할 事項 및 實現可能性에 關하여 檢討하려고 한다. 한가지 附言할 것은 各 形態의 接觸全般에 걸친 檢討가 아니고 大體的인 基本方向만을 提示하였음을 밝힌다.

가. 人士往來

(1) 記者交流

우선 交流方法에 있어서는 亦是 國際赤十字社나, 第3國을 通하여 雙方이 選定한 記者의 數名을 이들 機關의 周旋에 依해서 履行한다. 記者의 訪問地와 活動範圍는 雙方의 合意에 依해서 하되 우선 觀光地 古蹟地만을 巡訪하기로 한다. 그리고 歸還後 記者의 記事內容과 觀光, 古蹟地 寫眞은 自由로히 掲載할 수 있다.

(2) 觀光人交流

上記 記者交流에서 双方이 滿足스럽게 이루어졌을 경우 보다 範圍를 擴大해서 双方이 選定한 人원을 指定한 관광지, 古蹟地에 觀光團을 相互交流케 하는 것이다.

(3) 風習, 家庭行事を 통한 家庭交流

家族이 南北으로 分離되어 있는 條件下에서 남의 家族이 北의 家族의 결혼식, 葬禮式, 回甲등 家庭行事に 招請했을 경우 双方은 國際赤十字를 相互訪問 한다.

長短点 : 長 点

韓國側 : 長 点

(가) 北韓의 觀光地와 古蹟地의 施設, 구성이용도, 편의도면에 서 我方보다 훨씬 貧弱하기 때문에 我方의 優越性이 記者로 하여금 實證케 된다.

(나) 南北記者의 質的인 面에서 比較해 볼 때 我方이 越等히 優越하기 때문에 오히려 北愧에 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크다.

(다) 記者나 觀光人들의 外貌의 차림은 北韓住民들로 하여금 南韓의 優越性을 認識케 할 것이다.

(라) 高速道路를 통한 觀光으로 力量誇示

短 点 :

(가) 自由主義體制가 가지고 있는 外觀上의 社會無秩序를 北韓人들에게 보여 줌으로서 南韓社會를 誤解할 可能性이 있

다.

- (나) 商品의 看板이나, 商品에 있어서의 外來語 使用은 北韓人
으로 하여금 韓國의 主体性을 疑心케 할 수 있다.
- (다) 또 이로 因하여 北韓이 從來 宣傳하여 왔든 所謂 植民地
隸屬性을 實證케 할 可能性이 있다.
- (라) 觀光地의 自然條件이 韓國이 不利하다. (온천, 산수등)

北韓側 : 長 點

- (가) 觀光地마다 北韓은 休養地를 設置해 놓고 있기 때문에
南韓 記者나 觀光人들에게 北韓의 社會福祉政策의 優越性
을 宣傳할 機會를 갖는다.
- (나) 秩序整然하고 組織的인 社會를 보여줄 수가 있다.
- (다) 觀光地 周邊道路에 人爲的인 단장을 造作하여 宣傳效果를
피할 수가 있다.

短 點

- (가) 南韓을 訪問하고 온 歸還者들로의 입을 통해서 其間 北
韓의 거짓 宣傳이 暴露된다.
- (나) 記者와 觀光人들의 入國으로 因한 住民들에게 미치는 影
響과 思想의 動搖를 가져올 수 있다.
- (다) 이로 因한 自由化傾向이 싹틀 可能性이 있다.

치러야 할 代價 :

韓國側 :

- (가) 反共法, 國家保安法 修正과 이로 因한 諸般 法的, 社會的
問題

(나) 觀光人을 통한 北韓의 合理的인 間諜行為와 連絡手段으로
利用

(다) 反共意識 弱화

北韓側 :

(가) 思想的인 動搖

(나) 對南虛偽宣傳拋棄 乃至 戰略 戰術 修正

(다) 古 風習, 관혼상제를 부 乃至는 認定

(라) 重工業政策 修正

實現可能性 :

記者交流에 限해서 그 實現이 可能하다 하겠으나 其他 交流問題
는 相當한 時間이 經過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됨.

參考事項 : 北韓側은 이미 人공교류를 主張한 바 있으나, 그 具體
的인 內容은 밝힌 바 없다.

나. 體育交流

(1) 國際競技에 共同出戰

우선 國際競技에 있어서 南北은 共同으로 出戰할 수 있도록
雙方이 出戰妨害 乃至 虛偽宣傳을 하지 않는 方向으로 雙方 무-
드를 造成한다.

(2) 南北單一代表팀 構成

上記 國際競技에서 相互協調的인 무-드가 造成되었다고 認定
할 때 第3國에서 南北 體育代表者間에 單一팀構成, 出戰問題를 協

議한다.

(3) 南北體育交流

最終的으로 南北은 100 나 第3國의 機關을 通해서 雙方 體育交流를 한다.

(가) 서울 - 平壤 蹴球大會

(나) 大學生 競技大會

(다) 部門別 競技大會

女子 : 농구, 배구, 탁구, 陸上, 수영

男子 : " " " " "

(라) 고전경기

활쏘기, 씨름, 그네뛰기 等

長短點 :

韓國側 : 長 點

- ① 大部分의 競技에서 韓國의 勝算이 있다. (特히 個人技)
- ② Sport 裝備面에서 南北이 國產으로 한다면 韓國이 優越하다는 것을 認識시킨다.
- ③ 北韓의 選手들이 南韓에서 內心, 南北을 比較해서 스스로 南韓의 優越性을 認定하게 될 것이다.
- ④ 北韓인들이 漸次 南韓에 對한 새로운 認識을 함으로써 思想的인 動搖를 가져온다.

短 點

- ① 蹴球을 비롯한 人氣種目的 團體競技에서 敗할 可能性이

있어, 南韓의 國民들로 하여금 北韓의 全般的인 優越性으로 誤認케 할 可能性이 있다.

- ② 體育場施設이 南韓이 北韓보다 劣勢에 놓여 있음이 暴露
- ③ 體育人에 對한 對우가 南韓이 北韓보다 劣勢에 있음이 暴露

北韓側 : 長 點

- ① 體育場 施設이 南韓보다 越等하기 때문에 宣傳效果를 가진다.
- ② 體育人에 對한 待遇가 南韓보다 좋기 때문에 亦是 宣傳效果
- ③ 蹴球를 비롯한 團體 몇몇 人氣種目에서 勝算이 크다.
- ④ 南韓의 弱點을 利用해서 政治工作의 對象 發見

短 點

- ① 裝備面에서 北韓이 劣勢에 놓여 있음을 自己 選手들에게 暴露시키게 된다.
- ② 個人技 劣勢
- ③ 掃選選手들의 입을 通해서 새로운 南韓認識

치러야 할 代價 :

韓國側 :

- ① 反共法, 國家保安法 修正
- ② 體育場施設 擴張
- ③ 體育人의 待遇改善

北韓側：

- ① 体育種目の 多様化 時急
- ② 体育裝備 改善
- ③ 自由化 甘受
- ④ 思想動搖

参考事項：

- ① 1964年 東京 Olympic 때에 南北이 單一팀 構成問題
를 檢討한 바 있다.
- ② 이것 亦是 北韓이 交流를 主張했으나, 具體的인 內容은
없었다.

다. 芸術交流

(1) 個別芸術人 交流

南北은 UNESCO나 第3國의 機關 또는 餘他 適切한 채널
을 通하여 南北間에 音樂, 芸術, 彫刻, 写真, 무용 등의 諸分野에
걸쳐 相互交流한다. 芸術의 內容은 個個人的 特技를 中心으로
한 古典 즉 民俗舞蹈, 音樂, 樂器演奏의 交流와 美術, 彫刻, 建築,
写真展示會의 交流로부터 始作해서 現代芸術諸分野까지를 總網羅 한
다.

(2) 芸術團體 交流

上記 個人技 芸術이 相互 円滿히 進行되었을 경우 團體芸術
로 擴大, 相互 交流한다. 韓國側이 北韓에 派遣할 수 있는 것으

로서는

- (가) 市交響音樂團
- (나) 에그린音樂團
- (다) 國樂團
- (라) 各種 舞蹈團
- (마) 其他 芸總傘下의 諸團體

長短点 : 長 点

韓國側 :

- ① 北韓보다 個人技에 있어 越等히 優勢
- ② 多様な 作品을 展示할 수 있다.
- ③ 北韓의 4~50代로 하여금 復古思想을 鼓吹
- ④ 芸術에 必要한 設備가 優勢
- ⑤ 韓國의 芸術이 北韓住民으로 하여금 思想的 動搖를 가져올 수 있다.

短 点 :

- ① 韓國芸術人이 北韓에 비해 一般的으로 待遇가 낮고, 國家的으로 生活保障策이 없음.
- ② 北韓芸術이란 純粹하다기 보다는 共產主義의 思想과 리허리즘의 思想이 담긴 芸術이기 때문에 政治的인 影響을 받을 可能性이 있다.
- ③ 一般的으로 民俗芸術分野에 있어서 韓國이 北韓에 비해 水準과 規模가 낮을 可能性이 있다.

北韓側：長 点

- ① 北韓芸術人は 政治意識이 強하기 때문에 宣傳의 効果를 노릴 수 있다.
- ② 北韓은 南韓의 弱点を 所謂 芸術로 表現하여 宣傳效果를 노릴 수 있다.
- ③ 民俗芸術 部門에서는 韓國보다 優越할 可能性이 있다.
- ④ 南韓芸術人보다 待遇가 좋고, 生活保障이 되어 있다.
- ⑤ 舞台를 비롯한 劇場이 웅장한 点에서 效果를 얻을 수 있다.
- ⑥ 芸術人을 通한 對南工作이 可能하다.

短 点：

- ① 芸術의 多樣性이 없다.
- ② 芸術에 必要한 裝備의 質이 落後
- ③ 現代音樂과 芸術에 對한 落後性

치러야 할 代價：

韓國側：

- ① 反共, 國家保安法改正
- ② 芸術人 全般에 對한 待遇 改善策이 必要
- ③ 民俗芸術 發展策 講究
- ④ 對南工作手段 利用

北韓側：

- ① 南韓의 芸術導入으로 住民들의 自由化思想 抬頭
- ② 南韓의 芸術 (特히 流行歌)

北韓에 普及으로 因한 修正主義 傾向

③ 現代音樂, 藝術에 對한 獎勵

④ 革命藝術의 退潮

實現可能性: 現在로서는 實現可能性이 稀薄하다.

라. 文化映畵交流

(1) 生活文化映畵交流

同 文化交畵 亦是 UMESCO나 第3國의 機關, 또는 適切한 其他 機關을 通하여 南北이 文化映畵를 交畵, 劇場에서 上映케 한다. 文化映畵의 內容은 南北 共히 日常生活을 中心으로 製作, 紹介하는 程度에서 끝인다. 相互 一定한 日時에 서울과 平壤에서 上映케 한다.

(2) 觀光 { 文化財 古蹟映畵 交畵

觀光地와 文化財 古蹟 전반에 걸쳐 映畵化하여 南北住民들 에게 紹介하는 것이다.

(3) 職業別, 부문別 文化映畵 交畵

同 映畵交畵는 各種 職業別(例: 銀行, 觀光公社)과 부문別(例: 工業分野, 農業分野)로 일의 內容說明과 特徵 等を 詳細히 紹介해 주는 것으로 製作하여 相互交畵한다.

(4) T.V 放映交畵

南北 共히 T.V에서 放映되고 있는 作品中에서 가장 非政治

적이고 藝術的 作品을 選定, 録画하여 필름을 相互交換, 一定한 일
시에 서울과 平壤에서 各己 TV放送局을 通해서 放映한다.

長短点 : 長 点

韓國側 :

- ① 文化面에서 北韓을 压倒할 수 있기 때문에 住民들에게
波及效果
- ② 韓國生活文化의 多樣性이 주는 北韓住民의 思想的 動搖
- ③ 北韓의 對南 虛偽宣傳이 暴露

短 点

- ① 植民地 文化라는 逆宣傳을 當할 可能性이 있고, 北韓住民
들에게 逆으로 實証시킬 可能性이 있다.
- ② 朝鮮 固有의 文化로서는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点.
- ③ 文化의 主体性 欠乏

北韓側 : 長 点

- ① 北韓住民들에게 南韓의 植民地文化, 美帝文化라는 것을 實
証시킬 資料를 갖는다.
- ② 文化의 主体性이 없다는 것을 弱点삼아 逆宣傳,
- ③ 民族文化라는 美名下에 南韓文化를 蔑視, 輕蔑시킬 수 있
다.
- ④ 北韓대상文化의 優越性을 誇示할 機會를 갖는다.

短 点

- ① 文化水準이 너무 낮다.
- ② 日常生活文化가 너무 單調롭다.

③ 文明의 利器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④ 南韓의 文化로부터 压倒當할 可能性이 있고 北韓住民들의 模倣할 可能性이 있다.

처리해야 할 대가

韓國側 :

① 反共法, 國家保安法 改正

② 對北韓에 對한 現在의 認識으로 보아, 생각했던 것보다 水準이 높다는 데서 오는 政府에 對한 虛偽反共宣傳이 暴露

③ 따라서 多少 反共宣傳의 지양

④ 反共意識 弱화

北韓側 :

① 南韓文化映面上映으로 因한 住民思想의 動搖와 修正主義 대두 可能性

② 戰爭文化 止揚

③ 革命意識 弱화

實現可能性 ; 部分的으로 (北韓重工業分野) 實現이 可能하다.

參考事項 : 北韓이 從來 막연하게 主張한 바 있다.

마. 各種 出版物 交換

同 交換 亦是 UNESCO나 第3國 或은 適切한 方法으로 相互 交換한다. 交換內容은 日刊新聞, 雜誌, 面報, 學術誌 等を 交

流한다. 大衆에게 開放한다.

長短点 : 長 点

韓國側 :

- ① 우선 種類가 多樣하고 內容이 多樣하다.
- ② 出版物의 紙質과 印刷技術이 優越하다.
- ③ 各種內容의 出版物을 通하여 眞正한 意味의 自由가 人가를 느끼게 할 수 있다.
- ④ 南韓의 自由스러운 분위기를 感知케 한다.

短 点

- ① 社会面에서의 南韓의 弱點을 利用하여 北韓 國內政治에 利用하는 資料를 提供하게 된다.
- ② 北韓이 南韓에 對한 事實無根한 虛偽宣傳을 해서 南韓社会를 攪亂, 混亂케 할 수 있다.
- ③ 共產主義 理論이 合法的으로 들어옴으로써 革新勢力 乃至는 共産黨의 合法的인 政治工作 活動을 提供케 한다.

北韓側 : 長 点

- ① 合法的인 南韓赤化工作의 一環으로서 紙面을 通한 政治工作을 할 수 있다.
- ② 紙面에서 南韓에 對한 中傷謀略을 함으로서 南韓社会를 攪亂케 해서 住民들의 判斷을 흐리게 한다.
- ③ 南韓資料로서 北韓住民에 對하여 社会主義 優越性을 逆宣傳할 수 있다.

短 点:

- ① 北韓新聞이 모두 政治的이고 또 전편 일률적이고 單調롭기 때문에 南韓住民들로부터 큰 效果를 期待할 수가 없다.
- ② 紙質과 印刷 技術面에서 南韓에 뒤지기 때문에 스스로 落後性을 暴露하게 된다.
- ③ 北韓의 南韓에 對한 中傷謀略, 虛偽宣傳이 結局 暴露하게 된다.

치려야 할 대가 :

韓國側 :

- ① 北韓의 南韓에 對한 故意的인 中傷謀略, 虛偽宣傳을 一次的으로 防止할 수가 없다.
- ② 出版物을 통한 共產主義 理論 流入
- ③ 國內 學生住民들의 不穩書籍 購読에 對한 處理問題
- ④ 反共意識 弱화
- ⑤ 反共法, 國家保安法の 機能마비

北韓側 :

- ① 革命意識 弱화
- ② 住民의 自由化思想 抬頭
- ③ 住民 統制緩和

바. 總濟交流

(1) 共同어로

同 共同어로는 南北韓이 共同어로장을 設置하여 共同으로 조

업하는 것이다. 南北漁業組合은 双方 合議에 依하여 現休戰線上的 適當한 곳을 選定하여 이를 行한다.

(2) 南北어로의 自由化

南北은 操業을 爲해서는 各己 自由로히 南北의 海上을 往來 하면서 操業을 한다.

(3) 商品交流

(가) 南北共同商品 展示場 開設

南北은 休戰線上的 適當한 곳에 商品展示場을 設置하여 놓고 相互 商品만을 展示하며, 同 地域을 觀光地로서 双方 合意하여 訪問하는 觀光客들에게 自由로이 觀覽케 한다. 但, 觀光人의 數等에 關해서는 事前合議를 본다.

(나) 展示場에서 商品交流

同 展示場을 通하여 双方의 무드가 造成된 後, 어느 時點에 가서는 觀光人들에게 紀念用으로 1個 1個式 自由로이 商品을 購買할 수 있도록 한다.

(다) 南北交易

同 展示場을 通해 双方 滿足할만한 成果가 있을 때 南北은 共히 國民의 幸福과 平和的인 目的을 爲해서 必要로 되는 商品에 關해서는 物物交換 乃至는 適當한 流通方法에 依해서 相互交易에 合議를 본다. 同 交易 亦是 円滿하게 進行되는 境遇 段階的으로 擴大한다.

第1段階: 展示場을 통한 交易

第 2 段階：海上交易

第 3 段階：港口를 통한 交易

第 4 段階：陸上交易

長短点：長 点

韓國側：

- ① 어차피 漁民들이 拉北되고 있는 狀況에서 共同어로場을 設置하여 이를 防止.
- ② 現在 漁民들의 拉北을 完全히 事前에 防止할 수 없는 경우 “ 밋겨야 본선 ” 格이 된다.
- ③ 漁民들의 裝備面에서 韓國이 優越하다.
- ④ 双方이 宣傳効果를 노리기 위해서 競争을 한다고 해도 結局 北韓은 從來의 閉鎖政策을 緩和하게 된다.
- ⑤ 南北漁業交流로 因하여 双方 影響을 받게 되는데, 結局 北韓이 打撃이 클 것이고, 漁民의 思想的 動搖를 가져 온다.
- ⑥ 經濟交流中에서 輕工業品은 絶對적으로 韓國이 優越하다.
- ⑦ 相互競争의 경우 北韓은 從來의 重工業政策을 止揚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因한 競争意識 弱化.
- ⑧ 南韓의 優越하고 多樣한 商品으로 因한 北韓의 動搖를 가져 온다.
- ⑨ 商品을 通하여 南韓의 優越性和 北韓의 落後性이 暴露된다.
- ⑩ 終局的으로 統制經濟政策을 止揚하게 됨으로써 外部에 開

放하게 되고, 修正主義가 不可避 抬頭되고, 또 이로 인한 北韓指導層에 混亂을 가져온다.

短 点

- ① 北韓漁民이 南韓보다 生活保障이 되어 있다.
- ② 南韓漁民의 落後性이 暴露
- ③ 이로 인한 韓國漁民이 北韓의 政治工作의 対象이 된다.
- ④ 漁船自体에 對한 施設이 南韓보다 優越하다.
- ⑤ 南韓의 境遇 漁民들이 生活이 比較的 낮기 때문에 北으로 越北의 可能性이 있다.
- ⑥ 商品의 境遇 重工業品은 南韓보다 훨씬 優越하기 때문에 逆宣傳 當할 可能性이 있다.
- ⑦ 商品의 영문表示는 植民地 隸屬化를 北韓住民에게 實証시킬 可能性이 있다.
- ⑧ 原料의 外國依存이 크다.

長 点:

北韓側:

- ① 一般的으로 南韓보다 漁民의 生活保障이 잘 되어 있다.
- ② 漁船의 施設이 比較的 現代化 되어 있다.
- ③ 重工業商品이 絶對적으로 優越하다.
- ④ 南韓商品의 弱點을 利用하여 北韓住民에게 政治的 效果를 노릴 수 있다.
- ⑤ 原料의 大部分을 自給自足한다.
- ⑥ 機械化를 앞세워 큰 政治的 效果를 노릴 수 있다.

⑦ 合法的으로 對南政治工作을 할 수가 있다.

短 点 :

① 北韓漁民들이 南韓의 自由스러운 生活을 눈치채고 南으로 歸順할 可能性이 있다.

② 拉北行爲가 不法化된다.

③ 一般的으로 北韓住民들의 生活의 落後性이 暴露된다.

④ 住民들의 不滿 露骨化

⑤ 修正主義 抬頭

⑥ 社会的 混亂

⑦ 思想統制力의 弱화

⑧ 商品의 質이 낮고, 單純.

치러야 할 대가 :

韓國側 :

① 韓國經濟의 어느程度 外國隸屬性 設定하게 될 우려성

② 政治的으로 逆宣傳 當할 可能性

③ 反共, 國家保安法의 無氣力

北韓側 :

① 重工業政策 止揚하고, 輕工業育成

② 生活의 落後性으로 因한 住民의 不滿에 위협

③ 修正主義 導入

實現可能性 : 어로 交流는 可能性이 있다 하겠으나, 商品交流 (輕工業 製品) 는 北韓이 反對할 可能性이 있다.

參考事項 : 北韓은 漁業을 爲한 相互交流를 主張해 왔다.